

2018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

글로벌 배틀트립

배우고, 틈을 키우는 여행



프로젝트 진행 결과보고서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CONTENTS

4

2018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글로벌 배틀트립」

7

프로젝트 진행 결과보고서

9

동기사랑 동갑사랑

- 영국 선진 진로시스템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 개발

35

드라이 융엔

- 독일 청소년의 사회통합 활동 및 주도적 사회문화활동 벤치마킹

47

배틀넷

- 미국 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 MOU 체결 및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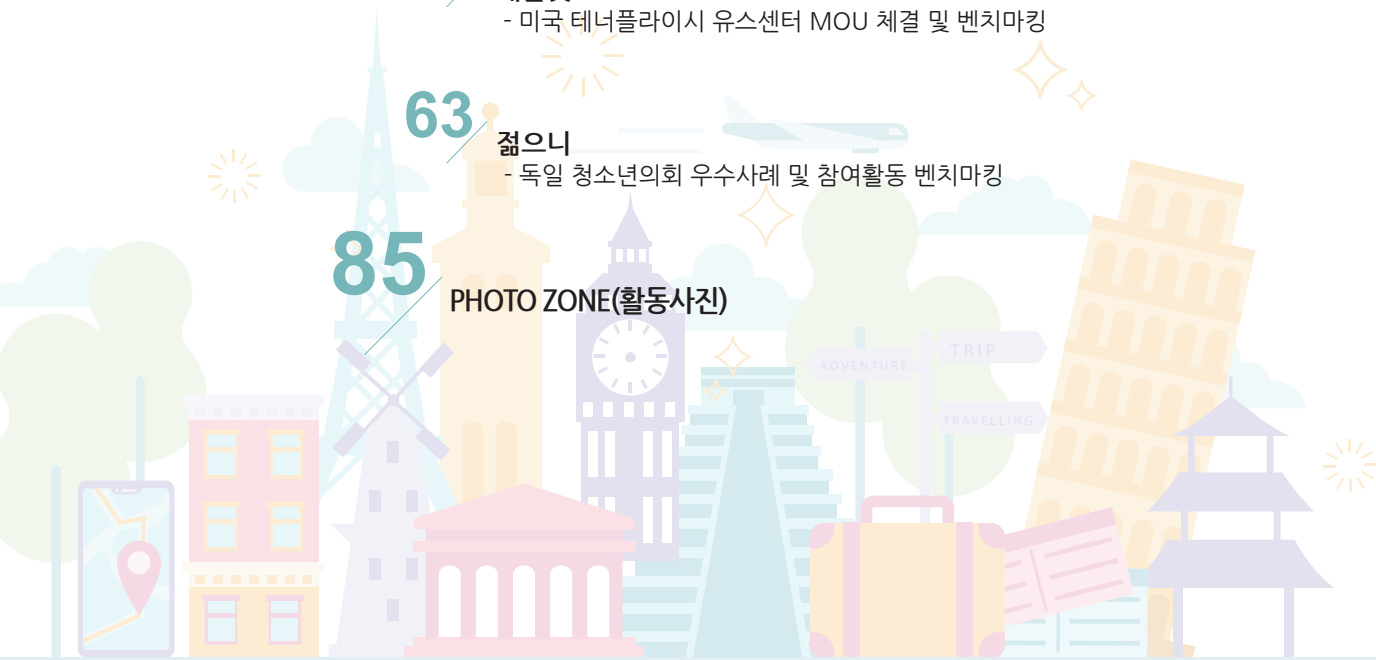
63

젊으니

- 독일 청소년의회 우수사례 및 참여활동 벤치마킹

85

PHOTO ZONE(활동사진)



2018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

- 글로벌 배틀트립 (배우고, 틀을 키우는 여행) -

1. 글로벌 배틀트립이란?

성남시 및 재단의 활동범위가 국제무대로 확대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청소년 지도자의 국제역량 향상과 재단의 파트너 국가 확보를 위하여 직원들의 해외 청소년 기관 및 문화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된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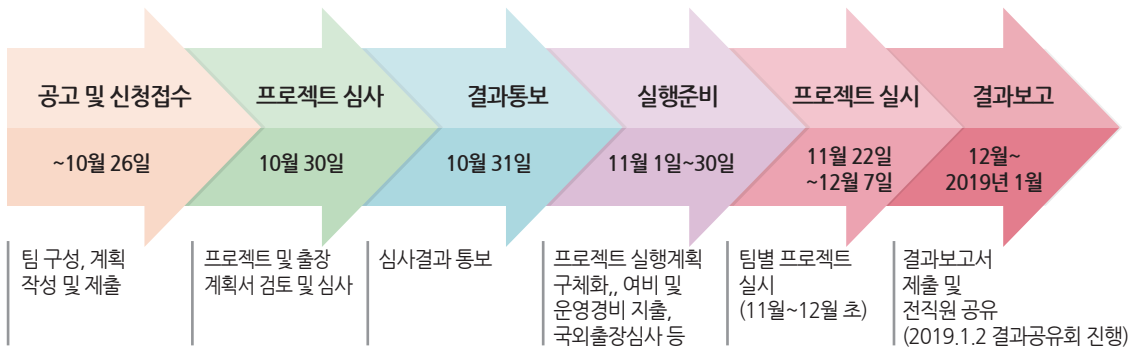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 '글로벌 배틀트립'
- 기 간 : 2018년 10월 ~ 2019년 1월
- 장 소 : 청소년관련 국제회의 및 시설, 정책 벤치마킹 가능한 해외 국가
※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여권법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중 「여행자제」이상 국가 및 해당 지역은 불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참조)
- 대 상 : 재단 전 직원
- 선정규모 : 4팀(1팀 당 2 ~ 4명 내외)
- 지원사항 :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에 한하여 지원

4. 추진과정



5. 선정팀 및 내용



6. 기대효과

- 해외 우수사례 접목을 통한 재단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화, 선진화
- 세계 흐름에 맞는 글로벌 재단으로의 성장 및 우수 프로그램 개척의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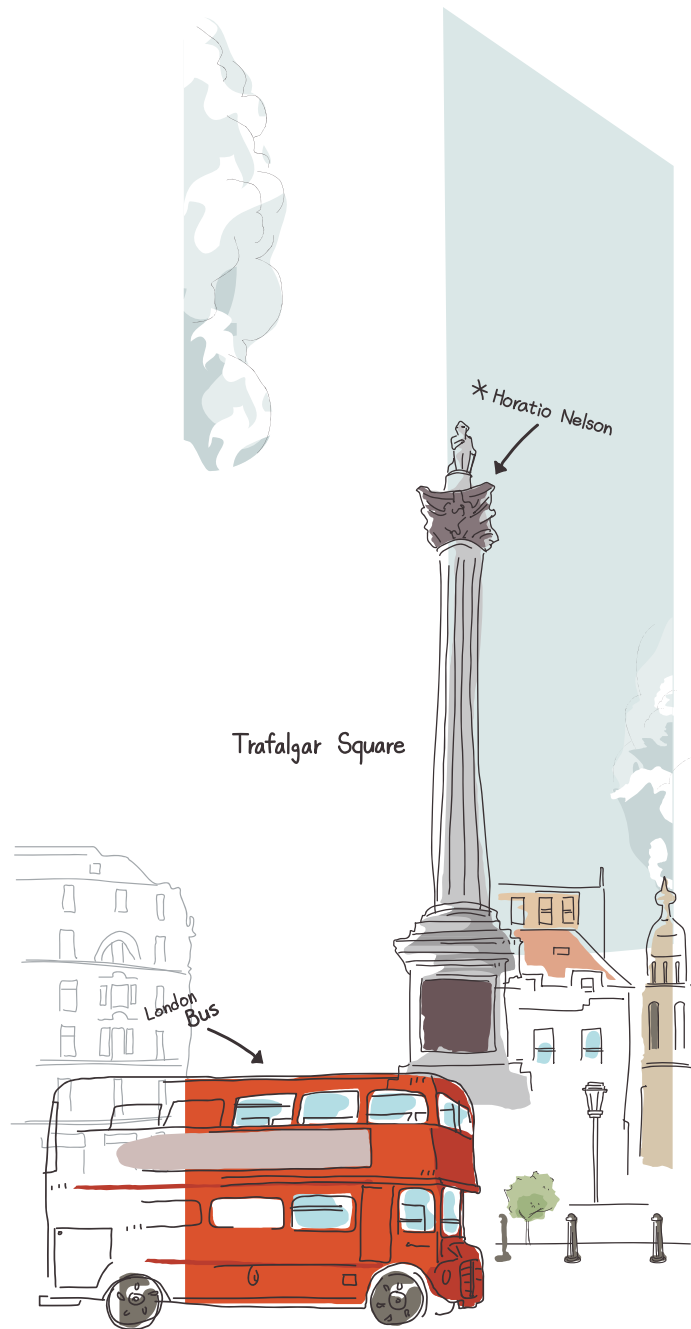
2018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

글로벌 배틀드림



프로젝트 진행 결과보고서







2018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 「글로벌 배틀트립」

프로젝트 진행 결과보고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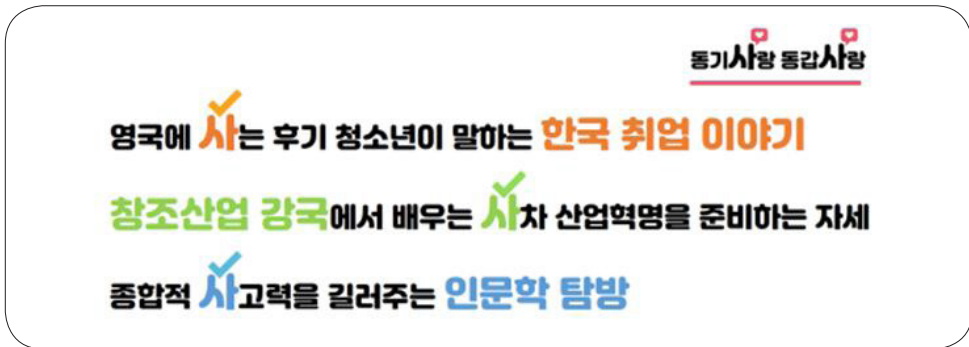
동기사랑 동갑사랑(영국)

영국 선진 진로시스템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 개발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주제



■ 배경 및 목적

● 후기 청소년, 한국을 떠나 영국을 찾다.

많은 후기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외국 생활에 환상이 있어서, 해외 취업을 위해, 혹은 헬(hell)조선을 떠나고 싶어서. 어느 쪽이든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또는 일찌감치 퇴직을 결정한) 후기 청소년들의 '임시 이주'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후기 청소년들이 영국에 거주하는 형태는 워킹홀리데이(YMS: Youth Mobility Scheme, 청년교류제도), 어학연수, 대학진학, 해외기업 취업 등으로 다양하다. 어떤 형태이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영어권에 속하는 영국은 유학생들에게 인기다.

2016년 유럽 내 한국 유학생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6년 영국 내 한국 유학생은 9027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스페셜뉴스, 2018.02.21.] 특히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교육 거주증을 받은 장기 한국 유학생들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유로화 약세로 학비 부담이 줄고, 유럽국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TBS, 2017.12.31.]

한국을 떠난 유학생들은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유학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후기 청소년들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신입사원으로 취업하기 어렵고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한국의 취업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2018.10.24., 시사저널]



네이버카페 '영국성' (<https://cafe.naver.com/soccermovie>)

우리는 런던에 거주 중인 유학생(후기청소년)들을 유학생 정보공유 카페에서 사전에 섭외 후 현지에서 만날 것이다. 어떤 목적으로 영국으로의 임시 이주를 결정했으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 형태,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들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인터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유학을 경험한 후기청소년들이 체감하는 한국 취업의 문제점,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와 다양한 경험, 활동 등을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함께 고민해볼 것이다.

● 영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조적 인재 양성법



지난 6월13일, 영국 런던 대영도서관에서 '제4차 한영 창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한영 창조산업포럼'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가 2013년부터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국가를 번갈아가며 매해 개최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VR, AR, 인공지능, 게임, 음악 등을 주제로 양국 간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2018.6.13. 문화체육관광부]

창조산업은 광고·건축·예술시장·게임 등 창의성을 요하는 문화산업 전반을 일컫는다. 창조산업과 4차 산업혁명은 얼핏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로봇과 관련된 기계 산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화·자동화·기계화가 아닌, 3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공과산업에 인문·문화·예술적 역량을 담아 창의적으로 가시화해내는 데에 있다.

영국은 창조산업의 강국이다. 이러한 힘의 저변에는 2000년대 초부터 주력하고 있는 영국의 창조적 인재 양성 시스템이 있다.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창조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로의 재능을 전환해주며, 연구 자금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영국 창조산업의 다양한 지원 시스템 중 특히 Apprenticeship(견습제도)을 눈여겨 보았다. 청소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직업훈련과 경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혁신대학기술부(DIUS) 산하의 학습기술위원회(LSC)는 견습 제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운용하며 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한다. 주 대상은 16~25세 사이의 청년인력이며, 약 80개 직업군의 180개 직종을 경험할 수 있다. 견습제도 시스템을 통해 영국의 전체기업 중 10%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견습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창조문화산업·레저산업·고객서비스·정보관리 등 분야의 견습 수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우리는 Apprenticeship(견습제도)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창조적인재 양성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기금을 운용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할 것이다. 방문하려는 기업은 총 3곳이다. 청년들의 창업을 컨설팅 해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startup accelerator), 아티스트가 작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멘토링부터 작품 판매까지 돕는 문화예술 기업, 청소년들의 욕구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 기업까지. 각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지만 모두 창조산업 및 청소년 지원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 각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에게 우리의 방문 목적을 사전에 알리고 방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서튼 후의 투구 <대영박물관 소장>

● 인문학, 사고(思考)하는 청소년이 되는 Key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여 식민지배를 한 대표적인 국가다. 영국이 식민지배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물론이거나 전쟁의 전리품을 본국에 돌려주지 않는 일 또한 질타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영국이 전쟁의 전리품을 그 어떤 국가보다 잘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영국은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전시관과 미술관이 대부분 무료다. 전 세계 문화의 집성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데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는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역사·예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하는데 일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 초점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고 청소년들의 진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들의 취업 등 모든 활동 중심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와 AI의 결합으로 계산능력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인 부분까지 기계가 대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향후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창조력, 상상력, 공감능력, 종합적사고 능력에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교육은 계산을 하는 능력이 아닌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인문학이 있다. 기존 인문학 육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문한국(HK)사업'으로 현재까지 13년 동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세계와 결합시킴으로써 '통일인문학', '로컬리티 인문학' 등 독특하면서 세계적인 연구 아젠다를 산출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인문학은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기적인 효과를 노려 당장의 문화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트렌드 창출 방식에 치중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는 점차 하나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시기부터 인문학의 장기적인 지원이 고안되어야 한다.

[머니투데이, 2018.10.22. 4차산업혁명, 인문학이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다.]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의 결혼>
(내셔널갤러리 소장)

우리는 인문학 여행을 기획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입장이 되어 런던의 인문학 명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유명 예술 작품을 실제로 보게 될 때 청소년들이 어떤 인상을 받을지 생각하며 청소년들의 눈으로 관람할 것이다. 내셔널갤러리에서는 전시된 작품의 작가들이 살았던 시대에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대영박물관에서는 전쟁을 통한 전리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토론할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앞서 청소년지도사로서 인문학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터득할 계획이다.

■ 장소 및 기간

● 2018년 11월 28일 ~ 12월 4일(5박7일)

● 영국 런던 일대

구분	내용
국명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위치	유럽 대륙이 서북쪽 북대서양
면적	24만 4820km ² (한반도의 약 1.1배)
언어	영어 (공용어)
인구	총인구 66,475,760명
출산물	1.79명
수도	런던
국가 및 정부 형태	입헌군주국 / 의원내각제
교육	6-5-2 (후기중등과정), 초등교육6년+중등교육5년=11년 의무교육
국내총생산(GDP)	39,720.44 USD (2017년 기준)
실업률	4.0% (2018.7.)
화폐단위	파운드 (pound / £)

■ 팀원 및 역할

● 팀 명: **동기사랑 동갑사랑**

● 구성원

소속	직급	성별	성명	역할
중원청소년수련관	6급	여	이예리	■ 사전준비 - 운영계획서 작성 및 사전연계 기관 조사 등 ■ 현지활동 - 방문기관 직원 및 유학생 인터뷰 ■ 사후활동 - 인터뷰내용정리 및 결과보고 작성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6급	여	장은지	■ 사전준비 - 운영계획서 작성 및 사전연계 기업 섭외 및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청년 섭외 ■ 현지활동 - 방문기관 직원 및 유학생 인터뷰 ■ 사후활동 - 인터뷰내용정리 및 결과보고 작성

2 세부진행내용

■ 전체 일정표

일 자	일 정	주요내용	장 소
11.28	이동 및 도착	한국 출발, 런던 도착	인천공항→히드로공항
11.29	기관 방문 I	교육지원스타트업, 아티스트 사회적기업 견학 및 인터뷰	에드스페이스, 콕핏아트
11.30	기관 방문 II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에이전시 견학 및 인터뷰	리비티
	인터뷰 I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일하는 유학생	몬머스커피컴퍼니
12.1	인문학 견학 I	세계 각국의 문화를 알아보는 박물관 견학	대영박물관
	인터뷰 II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는 청소년 인터뷰	무지(무인양품)
12.2	인문학 견학 II	예술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뮤지컬 감상	뮤지컬 전용관
	인터뷰 II	학생비자로 일하는 유학생 인터뷰	지라프커피숍
12.3	인문학 견학 III	역사적 시대상을 반영한 미술 작품 감상	내셔널갤러리
	이동	런던공항 출발	히드로공항
12.4	이동 및 도착	한국 도착	히드로공항→인천공항

■ 세부일정

구분	11.28	11.29	11.30
09:00	한국 출발 (인천국제공항) ⇒ 런던 도착 (런던 히드로공항)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10:00		기업 이동	기업이동
11:00		기관 방문 I 교육지원스타트업 '에드스페이스' 시설라운딩 및 담당자 인터뷰	기관 방문 III 청소년 사업 에이전시 리비티 시설라운딩 및 담당자 인터뷰
12:00			
13:00			
14: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5:00		기업 이동	이동
16:00	숙소이동 (LCS Chancery Lane Apartments)	기관 방문 II 아티스트사회적기업 콕핏아트 방문 및 인터뷰	인터뷰 I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일하는 유학생 인터뷰 및 저녁식사
17:00			
18:00	저녁식사		
19:00	·짐정리 ·2일차 일정 내용공유 ·방문 기관 사전 내용 공유 ·질문내용 정리	저녁식사	·3일차 방문 평가회의 ·4일차 일정공유 ·방문기관 사전 내용 정리 및 공유 ·사진정리
20:00		숙소이동	
21:00		·2일차 방문 평가회의 ·3일차 일정공유 ·방문기관 사전 내용 공유 및 정리 ·사진정리	
22:00			
23:00			

■ 세부일정

시간	12.01	12.02	12.03	12.04			
09:00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한국도착 (인천국제공항)			
10:00	이동	뮤지컬극장 데이시트 표 구입	이동				
11:00	인문학 견학 I 대영박물관견학	이동	인문학 견학 III 내셔널갤러리 방문 및 감상				
12:00		인터뷰 III 점심식사 및 유학생인터뷰 (지라프 커피숍)		평가회의 및 점심식사			
13:00							
14:00	점심식사		점심식사	해산			
15:00	이동	이동	공항이동	런던 출발 (런던 히드로공항) ⇒ 한국 도착 (인천국제공항)			
16:00	인터뷰 II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는 청소년 인터뷰 (무인양품 아르바이트) 및 저녁식사	런던 시내 관람, 저녁식사, 뮤지컬 이동					
17:00							
18:00		인문학 견학 II 뮤지컬 관람 '라이언 킹'					
19:00							
20:00	이동						
21:00	·4일차 방문 평가회의 ·5일차 일정공유 ·방문기관 사전 내용 정리 및 공유 ·사진정리						
22:00	·5일차 방문 평가회의 ·6일차 일정공유 ·방문기관 사전 내용 정리 및 공유 ·사진정리						
23:00							

■ 기관방문 및 워킹홀리데이 후기청소년 및 유학생 인터뷰

프로그램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관방문 및 인터뷰	에드 스페이스	 • 시설라운딩 : 사무실환경 및 직원인사 • 에드스페이스가 위치해 있는 해크니커뮤니티 컬리지 대학생들에게 소속 기업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타 테스트 진행 • 청년 대상 스타트업 지원방법 설명 및 운영방법 공유 • 코워킹하는 교육기업들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컬리지 내 대학생들에게 베타테스트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음
	콕핏아트	 •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경력을 바탕으로 선정이 되며, 예술분야와 관련되어 콕핏아트의 작업실제공 및 콕핏아트에서 진행되는 마켓 참여 기회 제공 • 상업적인 작가 되는 방법 및 노하우 제공
	리비티	 • 청소년연계사업의 종류 : 다양한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 -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체험 연계 및 진행 - 파티쉐, 바리스타, 도예체험 등 희망직업군 체험제공 •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 - 컴퓨터이용, 회의실사용, 간단한 간식제공 등
후기 청소년 인터뷰	워킹 홀리데이 후기청소년	 • 워킹홀리데이가 2년이라는 장점을 갖고 영국으로 왔으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음. •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걱정은 되지만 현재 영국에서 지내는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음 • 영국은 완벽한 워라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는 한국이 월등히 잘 되어 있음 • 사진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무료로 다양한 전시들을 볼 수 있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많아서 좋음
	유학생 I	 •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은 없으며, 현재 학생비자를 받아서 지내고 있는데, 결혼비자를 받아서 지낼 예정임 • 현재 영국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음 • 영국이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비싸지만 일을 하면서 생활에는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영국이 좋음
	유학생 II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영국으로 유학을 와서 예체능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는 것이 두렵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음 • 비자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큼

■ 인문학 견학

프로그램	장소	프로그램 내용
인문학 견학	대영박물관	 • 대영박물관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혼자 오디오 해설을 들으면서 둘러보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부모님들이 하나씩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세계의 역사의 중요한 유적들이 많아서 그런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집중해서 관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스스로 탐색하는 모습이 많이 보임 • 한국유학생들이 한국청소년, 청년, 여행자들에게 박물관에 대해 설명해 주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음
	내셔널갤러리	 •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로, 청소년 혼자 탐색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음 • 노트 등을 가져와 한 작품에 앉아서 작품을 따라 그려보는 등 작품 자체에 대해 이해하려는 모습이 많았음 • 영국이 인문학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청소년들의 관람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음 •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관람에티켓을 배울 수 있었음
	뮤지컬전용관	 • 주말 가족과 함께 관람하러 온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연인보다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절반 이상이었음 • 뮤지컬 관람 전 가족들이 뮤지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문학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었음

※ 기관 및 유학생 인터뷰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3. 향후 접목계획

1

현재 성남시에 있는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후기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영국에서 마주하고 있는 환경의 차이점에 대해 파악해서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현재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점인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후기청소년들이 선진국의 나라로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을 떠나는 이유 등을 파악하고 후기청소년들의 니즈를 분석하여 일방적인 복지지원이 아닌 후기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지원을 해야 할 시기이며, 영국 현지의 장점들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추어 벤치마킹하여 접목하여 진행필요

2

우리가 방문 한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향후 2019년 진행 될 예정인 국제청소년컨퍼런스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되었던 컨퍼런스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물어보고 2019년 컨퍼런스 계획 수립 시 개최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을 전달



리비티, 에드스페이스 기관은 2019년 진행 될 국제청소년컨퍼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E-mail로 정보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한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향후 각 시설별 후기청소년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 됨

3

현재 후기청소년 및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청소년대상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기획성 등에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리비티’ 기관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즐기면서 하고 있으며, 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정해진 틀에서 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고 기획성 등을 점검해 보는 계기 마련

4

4차산업과 연결지어 우리나라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해서도 영국의 인문학 발달과 연결 지어 프로그램 적으로, 사업적으로 연결해야 할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됨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향후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창조적, 상상력, 공감능력 등 종합적 사고 능력 개발 이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인문학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수업 등 과 영국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인문학과 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청소년들이 지루하게만 생각 하는 인문학이 아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인문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고 프로그램 기획 필요

4. 참여소감 및 평가

이예리

- 해외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청소년지도사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로 영국에 있는 후기청소년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과 영국에서의 생활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후기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취업, 대학생활 등)들에 대해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방문한 기관들에서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단의 사업들에 흥미를 많이 보였으며, 특히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향후 해당 기관과 한국의 후기 청소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담당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은지

- 기관 탐방을 하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영국이라는 선진국 못지않게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더해 영국 기관들의 열린 사고방식과 재미있는 이벤트 등을 차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자 청소년들의 구미가 당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졌습니다.
- 대학 유학과 워킹홀리데이로 영국에 거주중인 후기 청소년들에게 취업, 대학 생활, 자취,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시스템 등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고, 이를 바탕으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 영국의 생활양식과 한국의 생활양식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의 디지털 문화 전파력, 생활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한국이 영국보다 앞서있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선진국인 영국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함에 있어 연령에 의한 취향의 단절이 없고 전 세대가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이 인문학이 발전하고 창의적 인재가 성장하는 밑거름이라 판단하였고,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 느꼈습니다.

5. 붙임자료

■ 기관방문 인터뷰 세부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EdSpace (에드 스페이스)	• 담당자 이름 : Jo CRUSE (Managing Director / 전무) • 연락처(e-mail) : jo@edspace.io • 기관 위치 : Block D, Hackney Community College, Falkirk St
	• 인터뷰내용 Q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에서 만24세까지로 정의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만19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영국은 어떤가요? A 영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6~18세까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5~30세 사이의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까지도 담당합니다. Q 에드스페이스의 회사가 위치해있는 해크니 커뮤니티 컬리지(Hackney community college)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는 컬리지 소속의 대학생들에게 소속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교육 프로그램)을 베타테스트합니다. 이를 통해 에드스페이스는 대학생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문제점 등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컬리지의 대학생은 가장 업데이트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며, Win-Win하는 관계입니다. 참고) Community college(지역 대학) : 지역의 주민,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 교육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는 2년제 대학이다. 주로 전문 교육과 직업 훈련 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배운다. 또한, 대학 진학 준비 과정도 있다. 교양 과목과 전문기초 등 대학 스킬을 배운다. Q 우리나라에도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진행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공유하고 도움을 줍니다. 에드스페이스와 교육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에드스페이스는 교육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생을 지원하는 교육도 합니다. 기업들 간에 연계도 시켜주는 플랫폼 역할도 담당합니다. 50개가 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연계 중인데, 가장 큰 협력 기업으로는 Emerge education(이머지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EdSpace (애드 스페이스)	Q 우리는 영국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또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애드스페이스도 창조적 인재양성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나요? A 창조적 인재시스템이라고 하면 해크니 컬리지의 대학생들이나, 청소년에게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드스페이스가 직접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와 교류하는 기업들 중 일부가 직접 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UniFrog(유니프로그)라는 기업은 청소년들을 위해 리더십, 상황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개인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 기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Pi-top(피-탑)이라는 기업은 자체 제작한 노트북 키트로 메이킹 교육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합니다. 청소년들은 키트로 자신만의 게임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Q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창업)에 관심이 많은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창업 등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애드스페이스에서도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창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애드스페이스에 입사하기 이전에 경제학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기업이 정신을 독려하고, 계발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도시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의 모습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런던은 세계적인 도시이며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있고 젊은이들 역시 런던에 사는 사람들만 특혜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국에는 런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도시간의 격차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애드스페이스가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군요. Q 애드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제공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A 애드스페이스는 영국 내 유일한 교육 스타트업 지원기관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교육산업에 있어서 영국 내 리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애드스페이스 또한 5년 된 스타트업 회사로, 스타트업 회사가 가지는 어려움들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고 직원들의 야망이 크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육산업 자체가 영국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잘 운영되어왔는데 애드스페이스가 앞으로 더 발전해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애드스페이스는 소속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교육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곧 청소년들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Q 2019년 성남시에서는 청소년(만9세~24세)들을 대상으로 국제청소년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들로 토론하고, 각 나라 별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국제컨퍼런스와 관련된 메일을 보낸다면 애드스페이스에 가입되어있는 기업과, 소통하는 청년들에게 홍보를 해 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애드스페이스는 영국 내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고, 컨퍼런스 내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소통하는 기업 중 EggBurn(에그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시아 교육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야 하겠지만, 괜찮다면 이러한 기업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저희와 함께 코워킹하는 청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CockpitArt (콕핏아트)	• 담당자 이름 : Sandie Mattioli (Head of Development/ 개발 책임자) • 연락처(e-mail) : sandie@cockpitarts.com • 기관 위치 : Cockpit Yard, Northington S
	• 인터뷰내용 Q 콕핏아트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저희는 공예품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과 사업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총 2군데에 스튜디오를 두고 있는데요, 보석, 패션, 금속공예, 유리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작업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 상업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해 있는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들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오픈 마켓을 지원하고 함께 홍보도 하죠. 그리고 디자이너 일대일 코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방향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등을 설명해주고 조언해줘요. 초기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Exit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이너들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작품에 대해 고민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여왕상 기업부문 혁신 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Q 평소에 일반인들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물건들을 사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자의 디자이너마다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홍보를 도와주는 하나 다 같이 오픈하는 마켓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콕핏아트에서는 자신들의 작품을 만드는 공간으로 가장 많은 활용을 하고, 디자이너 개별적으로 주말에 마켓을 참여하거나 할 수 있어요.
	Q 청년들에게 이렇게 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제공하게 되었나요? A 저희는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을 희망해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기회를 주죠. 실력과 열정이 있는 디자이너들이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저희의 작은 도움이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돼서 이 곳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기반 마련을 통해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고요.
	[입주해 있는 후기청소년 은공예 디자이너인터뷰] Q 콕핏아트에서 후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리버풀에서 공부를 했고, 은공예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아서 레스토랑에서 파트 타임도 해보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보았는데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공예여서 콕핏아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콕핏아트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5년 째 이곳에서 후원을 받고 제가 하고 싶은 은공예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CockpitArt (콕핏아트)	Q 콕핏아트에서 작업을 하는 만족도는 어떤가요? A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준 곳이기도 하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콕핏아트를 통해서 저의 은공예 활동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나만의 작업실이 있어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저처럼 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디자이너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현재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은 꽤 오랫동안 콕핏아트의 지원을 받아 많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입주해 있는 후기청소년 미술디자인 디자이너인터뷰] Q 콕핏아트에 들어오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는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영국에는 다양한 공모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상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지원을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공모전에서 받은 상들이 저의 실력의 기반이 되니까요! 공모전이 많아서 더 어린 친구들이 많은 도전을 해서 콕핏아트에 들어오기 유리하죠~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런던에 다른 지역에 작업실을 따로 얻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만 콕핏아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콕핏아트에서 잘 된 케이스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다른 지역에 작업실을 얻었고,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겨울에는 콕핏아트에 와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Q 한국에도 이렇게 청년들에게 사업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곳을 벗어나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A 맞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콕핏아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꺼예요~ 체계적으로 되어있고, 입주신청이 조금 까다롭지만 실력이 있는 청년 디자이너들을 확실히 후원해주시니까 청년 디자이너들도 열의를 가지고, 콕핏아트에 입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거 같아요. 저보다 더 어린 청년디자이너들이 좋은 기회를 얻어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Livity (리비티)	• 담당자 이름 : Kate Harwood (Account Director / 광고 기획자) • 연락처(e-mail) : Kate@livity.co.uk • 기관 위치 : Unit 3.02, 9 Brighton Terrace, Brixton • 인터뷰내용 Q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에이전시로 알고 있는데, 리비티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현재 8년 된 회사이고, 영국, 런던 기업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들이랑 함께 연계해서 청소년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프리랜서들이랑 함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함께 하고 있어요. 조직의 최대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청소년들의 흡연, 탈선 등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도 기업들과 함께 있어요! 청소년들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그 기획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저희가 있죠. 또한 직업체험도 진행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청소년들 중심으로 운영 하고 있어요. Q 리비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부분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넷플렉스 등 대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며, 대부분 홍보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워야하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저희한테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하죠. 기업들도 홍보해주고, 기업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구조로 하고 있어요. DJ와 함께 음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비디오를 찍고 연계 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지요.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연계 된 DJ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려 청소년들이 각 자의 나라에서 영상을 찍어서 하나로 합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품이 되는 거죠. 또 대학교에서는 유능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와 연계하여 우리가 유능한 청소년들을 추천해서 그 청소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진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평소에 경험해볼 수 없는 체험들을 하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Q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기업들은 리비티에서 미리 선정해놓고 리스트업 하여 청소년들에게 공개하여,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선택하여 체험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A 아니요, 따로 리스트업 해 놓은 목록은 없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기관에 방문하여 이러한 체험들을 하고 싶다,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저희가 그 기업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컨택을 하는거죠. 정말 청소년들이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청소년들이 적집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목표예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만족도도 높거든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Livity (리비티)	Q 체험하는 장소, 기관들에게 체험을 요청하면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하는지, 또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 A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청소년이 당신의 기업에 가서 직업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흔쾌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요. 기업에서도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해보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해요.
	Q 그럼 체험활동 중에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A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공예 프로그램이에요. 청소년들이 직접 가죽공예 제품도 만들어보고, 도자기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죠. 기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Child line app'이라는 앱을 청소년과 기업이 함께 개발해서 청소년들끼리 공유하는 앱을 만들었는데 다운로드 수가 1,000건이 넘었어요. 호응이 아주 좋았죠.
	Q 우리 기관이랑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현재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른 진로프로그램이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현재 영국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 중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저희도 청소년들의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가장 화두 되고 있는 것이 digital citizenship(온라인시민성)이에요.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청소년들도 온라인에서 예의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죠. 온라인에서 매너를 갖추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캠페인활동도 많이 하고, 앞에서 말했던 기업들과도 함께 홍보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청년고용문제,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우리가 사전에 현지 유학생에게 물어보기에는 청소년사업을 하는 기관은 유일하게 YMCA라고 하는데, 런던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YMCA와 리비티인가요? A 아닙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UK youth,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클럽도 많이 있습니다. YMCA가 대표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유학생 청년들이 YMCA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잘 찾아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은 많답니다. 다만 그것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Q 청소년들은 리비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나요? A 청소년들과의 소통은 방문으로도 하지만 사실 방문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죠.
	Q 홈페이지에 보니 슬로건이 '모든 청소년들이 세계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공감되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A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저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바로 현재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희 모든 직원이 저 슬로건을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Livity (리비티)	Q 저희는 프로그램을 주말에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리비티도 주말프로그램이 있나요? 평일에는 몇 시까지 이 공간을 개방하나요? A 주말까지요? 그러면 직원들은 주말에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는 건가요? 오마이갓! 저희는 평일에는 6시까지만 근무하고, 공간도 6시까지만 개방해요. 주말에는 아예 근무하지 않고 있구요. 주말에는 청소년들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죠~ 저희 또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하구요. 영국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주말과 저녁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또 다른 청소년시설에서 케어를 하죠. Q 2019년에 성남시에서는 국제청소년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참고 자료로 작년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내년에 진행하게 된다면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홍보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면 이 곳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리비티에서도 관심이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A 오 정말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흥미로운 사업인 거 같아요. 홍보자료는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여기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홍보 당연히 할 수 있죠! 저희도 참여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내년 상황을 봐야지 알겠지만 정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면 너무 좋겠네요!

■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참여 후기청소년 인터뷰 세부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워킹 홀리데이 청소년	• 이름 : 김소희 (만22세, 여성, 사진전공) • 현재 일하는 곳 : 무인양품(무지MUJI) 파트타임
	• 인터뷰내용 Q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찾아보다가 영국이 예술, 미술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워킹홀리데이가 되기 어렵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2년이라는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유럽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국을 선택했고, 제 마인드가 여행은 살아보아야 알 수 있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도피성으로 '태국'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갔다 오니까 영국 워킹홀리데이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6개월을 잠깐 일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오게 되었어요.
	Q 영국에서 살기 좋은 점은 무엇인 거 같아요 ? A 한국에서 말하는 '워라벨'이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말만 워라벨 워라벨 하지만 실제로 워라벨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영국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저도 워라벨 실현이 가능한 곳이에요! 무조건 칼퇴를 하는 거 뿐만 아니라, 개인시간을 존중해줘요. 사실 여기서 일하는 게 기업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지만, 점심시간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한국에서는 다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고 대부분 같은 걸 먹으러 가는데 여기는 '나는 오늘 커피마실 거야' 하고 혼자 카페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와요~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주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일하고, 쉬는 것도 자유롭게 쉴 수 있어요.
	영국 워홀러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에요 ? Q 제가 사진을 전공해서 미술작품, 공연 등에 관심이 많은데 영국은 내셔널갤러리, 대영박물관 등 A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매일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영국 와서 좋은 작품들을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 보러 가려면 입장료도 비싸고 다시 한 번 보고 싶어도 또 입장료 돈이 들어가니까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고 나와야 해서 조금 아쉬워요. 한국은 작품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영국에서 지내면서 힘든 점도 있나요? A 제친구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생활패턴과 사고방식, 문화차이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리 한국을 좋아하는 영국 친구들을 만나도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워킹 홀리데이 청소년	Q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A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진 않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여기 생활을 행복하게 아주 만족하면서 지내고 가는 거 같아요. 유학생들은 우울한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졸업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니까 워킹홀리데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동안 알차게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돌아가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있으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Q 한국이 싫진 않구요? A 한국이 싫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여기 지내면서 한국이 싫어서 여기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제 성격상 정착은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못 살 것 같아요. 뽕속까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저의 마음가짐, 가치관에 따라 다른거 같아요. Q 다시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다시 생활에 적응해야하나,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주변 친구들 중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A 돌아갈 때 걱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전에 하던 일을 해야 하나, 다른 새로운 일을 해야 하나,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았나 등등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 맞춰서 다시 살아가야하니까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와서 바뀌는 건 나의 가치관이 조금 바뀐다고는 하더라고요 ~ 저도 평소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것부터 해야하지? 이런 고민을 종종 하긴 해요. 당연히 고민하는 거 같아요. Q 요즘 해외에서 스냅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진 전공 했으니까 이곳에서 스냅촬영하면서 지내는 것도 생각해보았어요? A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 솔직히 넉넉하게 버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돈만 버는 거예요~ 반은 쉬는 날 스냅을 하면 이득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 온 이유가 없어지겠더라고요. 여기에 온 이유는 생활을 하려고 온 건데, 스냅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 돈을 모아서 일을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냅을 많이 추천해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여기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Q 한국에서의 대학생 복지랑 영구에서 대학생, 청년들에게 복지들이 다른가요? A 영국 오기 전에 내일배움카드 같은 거 저도 많이 활용하고 했어요~ 이런 복지부분은 한국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한국이 혜택은 훨씬 좋아요! 여기는 대학생들이 직접 알아보고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많지만, 한국은 학생들에게 정보제공을 더 많이 해주는 거 같아요. 한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학교-학원-집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들이 굉장히 많고 홍보도 많이 하죠. 하지만 영국은 복지가 한국처럼 많이 없는 대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때까지 아니 성인까지 한국처럼 빡빡한 일정으로 사교육을 많이 하지도 않을뿐더러 워라벨을 실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Q 영국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해보여서 보기가 좋아요~! A 사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한국이나 영국이나. 저는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저도 토익&스펙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자격증에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했는데 막상 보니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면접 볼 때 느낀 것은 스펙보다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팀과 잘 어울리고 맞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스펙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스펙 때문에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는 거 같아서 아쉬워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유학생 I	• 이름 : 이은영(만23세, 여성, 실용음악 전공) • 현재 일하는 곳 : Graff coffee shop 파트타임 / 대학교 졸업예정
	• 인터뷰내용
	Q 한국에서 하지 않고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론을 자세히 알지 않아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더 많이 배우고자하는 목표가 크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소통시간이 많고 교수님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튜터와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 현재 예체능(음악) 쪽을 전공하고 있는데, 1학년 때 입학한 친구들을 보면 악보를 보지 못해도 진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은 학생이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갖고 있어야하는데, 영국은 이론을 몰라도 진학하고 배우면 된다는 것이 강한 것 같아요
	Q 지하철타고 오면서 보니까 대부분 책이나 신문을 읽고 있던데 원래 영국의 문화가 그런가요? A 역 앞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을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아 그것들을 받아서 보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핸드폰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은 습관이 많이 들여져 있어서 출퇴근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 서점도 정말 자주 볼 수 있구요!
	Q 영국은 인문학이 굉장히 잘 발달 되어 있는데 이유는? A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인문학을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문학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가고 전시회를 가면 학교 선생님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직접 설명해주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애들 전시회에 풀어놓고 “몇 시까지 모여~” 하시잖아요 (웃음) 그리고 영국에서 인문학 전공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고, 인문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Q 영국에서 후기청소년들에게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학생대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국제학생은 못 받지만 영국대학생들은 누구나 제한 없이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대신 한국처럼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학생이면 대중교통이 33% 할인이 되요. 대부분 16세 이상 25세 미만인데, 25세 이상이라도 학생이면 할인이 똑같이 되요.
	Q 현재 커피숍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한국보다 잘 되어 있는 점이 있나요? A 현재 영국 최저 임금 은 7.83파운드(한화 약 11,000원)이에요. 저는 기차역이고 사람이 많은곳이라서 그런지 10파운드(한화 약 14,000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파트타임은 영어만 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구하기 쉬워요. 임금은 절대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받고, 늦게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신고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루에 최대 8시간 근무하구요, 유급휴가가 일한만큼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 수 있어요. 여기는 주35시간 근무이고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어 철저하게 계산해서 주어요~ 한 달 만근하면 유급휴가는 보통 3일~4일정도 나오구요, 공휴일은 무조건 쉬고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쉬는 날을 눈치 보면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유학생 I	Q 그럼 유학생으로써 영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A 제가 예체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좋아요 ~ 한국은 공연 하나 보려면 10만원 정도 들잖아요. 영국은 무료 공연도 많고 펍에서도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교내 식당이나 학교 내부 어디에서든, 로컬에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죠. Q 한국이 싫진 않구요 ? A 한국이 싫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여기 지내면서 한국이 싫어서 여기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제 성격상 정착은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못 살 것 같아요. 뻘속까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저의 마음가짐, 가치관에 따라 다른거 같아요. Q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죠? A 일단 미세먼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영국도 먼지도 많고 공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열정페이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곳에서는 열정페이로 일하는 것은 볼 수 없어요~ 영국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한국에서 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걱정부터 되요. Q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A 일단 비자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서 한국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호주로 가서 음악치료를 배울 생각이에요. 음악치료를 배워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예정입니다. 비자 때문에 한국에 잠깐 가지만 한국 가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여기서는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서 한국가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 학비랑 생활비를 받고 있어서 솔직히 편하게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파트타임을 하는 이유는 방학때, 쉬는 날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비용을 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내는 게 힘들고, 파트타임도 힘들면 지내지 못했을 것 같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여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유학생 II	• 이름 : 김주현(만26세, 여성, 국제경영 전공) • 현재 일하는 곳 : 프리랜서, 통역 및 번역
	• 인터뷰내용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SOAS, Uni of London에서 막 석사를 마친 만 26세 여성 김주현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휴학하고 런던에서 2013년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 때 런던에서 정규 유학 및 일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되어 16년 9월에 다시 왔어요. 16년 9월~17년 6월엔 석사 예비 과정을 수학했고, 17년 9월~올해 6월까지 International Management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석사 과정 수학해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영국에 오게 되었나요? A 예전부터 영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라디오헤드를 시작으로 브릿팝의 엄청난 팬이고 또 축구도 좋아하여, 이전에 어학연수를 결심할 때 타 국가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영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3년도 어학연수 후 이 나라에서 석사를 하는 것이 제 개인의 경쟁력 및 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 한국에서 학사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잠깐하며 자금을 모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Q 한국과 영국이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정책(복지시스템)에 차이가 있나요? A 1. child benefit(until 18) : 말 그대로 한국의 아동수당 같은 거예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균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매주 한 아이 당 20파운드 정도는 되는데 이걸 18세 미만까지 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도 적용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예요.
	2. free oyster card (zip card) : 만 10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이 무료, 11~15세 청소년들은 버스는 무료, 지하철 & 기차요금은 어린이요금, 만16~17세는 반값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대중교통요금이 분명 더 요금이 비싸지만, 청소년에게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18세가 넘더라도 학생이라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아요! 한국 유학생들에게 유용하죠.

3. student financing for uni courses
: 영국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3년제예요. 대학 등록금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6000파운드(900만원)~10000파운드(1,500만원) 인거 같아요. 영국에 사는 영국인 대학생들은 student loans company(학자금 융자회사)라는 정부에서 기금을 대는 비영리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상융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생기지 않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일 년 수입이 어느 정도(한국 돈으로 3500만원 정도) 벌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유예되어요. 그 이상을 벌면 월급에서 공제되죠. 이걸 확실히 한국보다 낫네요. 한국은 이자를 내니까요. 아, 또 아주 가정이 어려우면 학자금 보조 개념으로 Grant 라는 것도 있어요. Loan이든 Grant든 유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어서 아쉽네요.

Q 한국의 취업과 영국의 취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취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가 소통, 민족주의(연고주의)가 더 심해요. 선진국이라 연고주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과는 다르게 낙하산을 나쁘지 않게 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유학생 II	회사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니, 분명히 괜찮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대신 영국은 이력서에 사진, 생년월일, 심지어 혈액형 및 종교 등에 대해 기재하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고주의가 만연하긴 하지만, 만약 연줄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만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경력 및 능력을 최우선으로 봐요. 그리고 영국 취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한국보다 영국의 취업이 훨씬 어려워요! 제가 알바하면서 만난 한국 분들 (영국에 출장 및 여행으로 오신 분들)께서 종종 한국 살기 너무 힘들니 웬만하면 영국 있는 동안 취직해서 여기 남으라고 말씀들 해주셨는데, 정말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한국은 한국인들끼리 경쟁하면 되지만, 영국은 영어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인이 와서 경쟁하는 곳이니깐요. 저를 포함한 제 외국인 클래스메이트들 중 현지 취업된 사람 아무도 없고, 다들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외국인 석사생이라도, 학력이 더 낮더라도 언어와 정서 100% 통하는 자국민을 회사에서도 당연히 선호하겠죠. 저도 헤드헌팅 회사에 연락 많이 해봤는데, 오죽하면 헤드헌팅 회사에서도 딱 잘라서 본인들이 가진(연계된) 회사들에서는 외국인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헤드헌팅 회사들은 취업을 시켜주면 중간 commission이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와 같은 문과생들한테 각박한 거지, 지금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대는 여기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에요! STEM 이라고 해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 이 4개분야는 외국인 및 여성 취업을 장려하고 있어요. Q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영국에 여행 혹은 유학, 임시거주 등을 추천한다면 어떤 이유로 추천하나요? A 박물관 및 미술관이 대부분 무료이니, 굳이 영국 문화가 아니더라도 서양사 및 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연극 및 뮤지컬도 마찬가지구요 (아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런던이 건축 도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한다고 봐요. 보통 '유럽' 했을 때 떠오르는 빅토리안 스타일 집들(보통 2존 좀 넘어가야 많이 보이지만요)과 런던 중심부 금융가의 초고층 건물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런던 거리를 걷기만 해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한국은 도시에서 옛날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영국에 오면 옛날 모습과 최첨단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꼭 빠른 성장만이 좋은 게 아니다, 라든지 모든 게 갈을 필요는 없다, 라든지?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생활 안에서 다양함을 배우는 건 중요한 거 같아요. Q 영국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추천하지 않나요? A 겨울에 해가 정말 빨리 저요! 특히 요즘은 저녁 4시 반이면 완전 한밤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다고보다는, 12~2월 여행은 되도록 피하는 걸 추천 드려요. 물론 저녁에 뮤지컬 보면 되긴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밝을 때 돌아다니는 게 런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럽이 다 그렇지만 여름엔 밤 10시까지도 완전히 흰하니 여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PC는 매우 잘되어있는데, 모바일은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튜브(언더그라운드)를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튜브 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데이터 사용이 힘들죠. 그 대신 책이나 신문을 많이 읽게 되는 좋은 점은 있어요. 물가가 비싸긴 비싼데, 그만큼 집에서 해먹거나 하면 괜찮아요! 여차피 여기서 생활하는 거면 1존이나 2존 안에서만 움직이니깐(그리고 걸어 다닐 거리에 근무하니깐) 교통비가 생각보다 안 들어요.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힘들겠네요. 밥값도 비싸고 맛도 없고 많이 돌아다녀서 대중교통도 비싸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영국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국은 가지 않으려고 하구요.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 비자가 곧 끝이 날 텐데요! A 현재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예요! 물가가 비싸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이곳의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영국인들의 생활에 아직은 조금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 딱치곤해요. 그래도 여기에 살기로 맘을 먹었으니까 영국 생활에 적응해서 지내야겠죠! 앞으로 영국에서 지낼 저의 생활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해요!





드라이 융엔(독일)

독일 청소년의 사회통합 활동 및
주도적 사회문화활동 벤치마킹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주제

청소년의 사회통합 미래전략 개발 및 주도적 사회 문화 활동



활동 Key Point

생각의 Size up

-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 우리는 서로의 선입견을 유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서로를 배운다.
-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존경한다.
-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며 우리 안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서로 평화, 정의, 창조질서보존을 위해 함께한다.
- 우리는 용기를 잃고 후퇴하지 않는다

사회통합은 단순 평화통일에서의 관점이 아닌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 배경 및 목적

■ 사회통합 활동

● 사회통합(통일교육)에 대비한 교육청의 미래적 준비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2일 100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말하다 집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세대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통일 의식을 키워가는 통일교육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 지향적, 미래 지향적 통일교육, 갈등 해결을 포함한 평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¹⁾

1)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집담회 개최(변화된 시대 통일교육에 대한 전북교육주체의 상호 이해 증진 기대, 브릿지 경제 2018. 10. 24.

● 사회통합(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

지금까지 대부분의 통일 교육은 주입식으로 교육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밀려나 중요하지 않은 교육이라는 인식되어져 왔다. 2014년 통일 대박론과 현 정부의 친화적 정책이 대두되면서 통일관련 유관기관도 늘어나고 교육방법도 다양해졌지만,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앞으로 당면하게 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심인 학교는 물론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들의 통일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통일을 당면하게 될 후 세대에 대한 맞춤형 교육정책과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방법론이 개발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²⁾

■ 장소 및 기간

구분	장소	기간
내용	독일(하이델베르크, 바인가르덴, 뮌헨)	2018. 11. 22.(목) ~ 27.(화) / 4박6일

■ 팀원 및 역할

● 팀 명 : Drei Jungen(드라이 옹엔: 세명의 젊은이)

● 구성원

소속	직급	성별	성명	역할
중원청소년수련관	6급	여	전미영	- 현지 방문 기관 섭외 - 기관방문 시 통역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6급	남	박태형	- 현지 자료 및 교통·숙박 조사 - 기관방문 시 논의 과제 정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6급	남	손세원	- 세부일정 정리 및 현지 조사 - 기관방문 시 활동사진 영상 촬영

2) 이스라엘 「통일교육 초·중교과 과정을 활용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방안」,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공연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P.10

2. 세부진행내용

■ 세부일정

구분	11.22	11.23	11.24
06:00-07:00	-	기상 및 세면	기상 및 세면
07:00-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00-09:00	수련관 ⇒ 인천 공항	폴 슈나이스 목사 (사회운동가) 사회 통합 인터뷰 진행	숙소 ⇒ 바인가르덴 뮤직박물관
09:00-10:00			
10:00-11:00			
11:00-12:00	인천 공항 ⇒ 프랑크푸르트 공항 ⇒ 프랑크푸르트 시청 방문		가정집 방문 사회통합 인터뷰 진행, 길거리 인터뷰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크	숙소 ⇒ 하이델베르크 시청 ⇒ 하이델베르크 대학 ⇒ 하이델베르크 도서관 ⇒ 하이델베르크 학생감옥 ⇒ 숙소	바인가르덴 ⇒ 뮌헨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숙소 체크인		숙소 체크인
20:00-21:00	정 리		
21:00-22:00			
22:00-23:00	취침		

구분	11.25	11.26	11.27	
06:00-07:00	기상 및 세면	뮌헨 ⇒ 하이델베르크	⇒ 프랑크푸르트 공항 ⇒ 인천공항	
07:00-08:00	아침식사			
08:00-09:00	인터뷰 정리			
09:00-10:00				
10:00-11:00				
11:00-12:00	숙소 ⇒ 국립독일박물관 견학 ⇒ 숙소	하이델베르크 대학 요하네스 오히리히 교수 인터뷰		
12:00-13:00		하이델베르크 ⇒ 프랑크푸르트	집정리 및 귀가	
13:00-14:00				
14:00-15:00				
15:00-16:00		프랑크푸르트 공항 ⇒ 인천공항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정리		
21:00-22:00				
22:00-23:00	취침			

■ 주요 활동내용

1일차 설렘 마음을 안고 독일로 GO~~



11월 22일 출발 당일 드라이 옹엔(세명의 젊은이)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다. 아니다 다를까 모두 잠을 자지 못해 다소 초췌한 얼굴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다. 탑승 후 독일에서의 인터뷰 내용, 장소, 이동 동선 등을 파악 했으며 어느덧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을 앞두고 있었다.

12시간의 긴~~~~ 비행을 거쳐 드디어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차' 독일과 한국은 정확히 8시간의 시차 차이가 있다. 그 힘든 시차에 대해 하루를 버텨야 독일 시간에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비몽사몽한 정신을 붙잡고 드라이 옹엔(세명의 젊은이)은 독일의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거쳐 프랑크푸르트 시청으로 이동에 독일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아쉽게 시청 담당자에게 사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업무가 생겨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시청 관계자에게 간단하게나마 사회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간단한 인터뷰 후 독일에서의 1일차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 되며 2일차를 향해 간다.

2일차 영화 택시운전사(A Taxi Driver, 2017)의 관계자와의 만남

독일의 작은 마을은 보통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진행된다. 2일차 폴 슈나이더 목사님을 뵙기로 했을 때 두명의 젊은이(박태형, 손세원)은 약간 의아한 생각을 했다. (아니 왜 목사님을 만나지... 목사님의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전미영 선생님에게 물었다. "독일은 목사님들이 사회운동을 많이 하셔서 보통 사회 운동가로도 부르기도 해 목사님도 1975년 당시 성남에 오셔서 민주화 운동 함께 하셨어" 말을 듣고 의구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목사님을
보고 어느 마을에나 있는 푸근하고
정 많은 할아버지에 느낌을 받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인터뷰 내용

폴 슈나이스(Paul Schneiss)

경력

- 前 동아시아 선교회 의장
- 1975 ~ 1984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선교사/ 한국 민주화 운동 참여
- 1980년 독일 국영방송 힌즈 페터(Hinzipeter) 파견
- 2011. 11. 5.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 운동자료 기증
- 2012. 세계지식인 강정평화선언 참여

수상 - 2011.5.18. 5.18재단 인권상, 5월 어머니회 '특별상'수상



Q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독일의 전반적인 사회통합 시스템은 어떤가요?

A 독일의 사회통합 시스템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독일은 다양한 인종,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수용 합니다. 한국에는 2개의 큰 정당이 있죠? 서로 다른 의견을 좁히지 않고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내는 의견을 모두 수용해 그것을 하나의 사회통합의 정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Q 목사님은 정치와 정책(사회통합)에 대한 관계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혹시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나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고 서독은 동독에 막대한 비용을 지원 했습니다. 약 20년~30년 정도 동독에 발전을 위해 투자를 했고 요 근래 들어 서독의 지역 도시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까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서로 이야기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통합 활동을 위해 제안이나 조언이 있다면?

A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익숙한 것들을 넘어 낯선 환경, 사람, 문화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청소년의 주도적 인터내셔널(자원봉사, 포럼) 있습니다.

episode1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기사에 기자故위르겐 힌츠펜터가 직접 내용을 알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터뷰를 한 폴 슈나이스 목사님이 한국의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고 위르겐 힌츠펜터 기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을 올 것을 이야기 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광주 5.18에 대한 영상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episode2

커피를 사드리겠다고 하자 목사님은 “한국은 1975년도있었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지역 이었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나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목사님 지금 성남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때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지역에 속합니다.” 라고 말하자 놀란 모습을 보이며 누구보다 좋아 하셨다.

3일차 바인가르텐 지역 가정집 방문 및 일반시민 인터뷰

3일차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하이델베르크에서 멀지 않은 바인가르텐 지역의 가정집이었다. 바인가르텐 지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마을이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통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보고 싶었다. 사전 독일 유학생 전미영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 가정집을 인터뷰 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첫 번째 사진처럼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라고 이야기 한다. 우리처럼 아파트에 사는 것은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인터뷰 내용

크리스타 호프만(Christa Hoffmann), 한스 호프만(Hans Hoffmann)

경력

- 바덴 개신교연합 한국위원회 회원

- Weingarten에서 Wuecherwurm 서점운영을 하며 지역네트워크 활동



Q 마을에 와보니 신기하게도 천주교 성당과 교회가 함께 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 간 서로 교류할 일이 없는데 바인가르텐 마을은 어떤가요?

A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마을과 독일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 간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종교가 다르면 서로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천주교 건물을 공사를 한다면 기독교 건물을 빌려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천주교 세례식에 참여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종교적인 사회통합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가 한일은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동독 개발을 하면서 오랫동안 서독의 개발이 늦어 졌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서독 사람들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서독 사람들이 독일로 넘어가 많이 살고 있고 동독 사람들도 서독으로 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독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지 동독을 위한 개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Q 통일이 된 후 서독과 동독 사람들 간의 문화 차이나 생각 차이는 없었나요?

A 독일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 합니다. 통일이 된 후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서독 문화와 생각에 맞추지 않도록 했어요 우리가 했던 일은 그들의 문화의 생각의 차이를 수용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맞힐 필요는 없었니까요 한국에서도 통일이 된다고 하면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A 독일은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때 약 3일간 회사에 가서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청소년이 그 일이 자신과 맞다고 생각하면 3일을 더 가서 총 6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독일을 중학교부터 자신의 인문계로 진학을 할지 기술직으로 일을 할지 알기 때문에 한국 보다는 조금 더 일찍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인터뷰]

Q 독일에 와보니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 같다. 인터뷰를 해주시는 ○○○도 오메가 시계에서 일을 한다고 해주셨고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일을 먼저 가르치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A 독일은 이미 오래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문화가 유입되어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역으로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외국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단지 언어가 되지 않는다고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노숙자가 되어 길에서 구걸을 하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시계를 고치게 해주면 됩니다. 언어의 문제는 그 다음 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의 장점은 그들이 기술직으로 언어가 되지 않은 채 들어오더라도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 행정직으로 진급할 수 있게도 해준다. 결과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episode3

드라이용엔(손세원)은 독일에선 벤츠, BMW, 아우디 차가 비싸냐고 일반 시민에게 물었다. 대답은 독일에서도 비싼차다. 드라이용엔 젊은이들은 생각했다. 독일로 와도 우리는 현대 기아차를 타겠구나.....

episode4

인터뷰한 슈테펜이 자꾸 인터내셔널 동료에 대해 이야기 하길래 물었다. “어디서 일하시는데... 자꾸 국제 국제 타령을 하는지...” “저요 롤렉스에서 일하다 최근 오메가 국제통합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드라이용엔(손세원)은 진작에 그가 찬 손목에서 빛나고 있는 롤렉스 시계를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후문.....

5일차 하이델베르크 대학 디아코니아 학과장 교수와 인터뷰



디아코니아 학과장 요하네스 오이리히 학과장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사회운동가, 일반시민에 이어 독일의 지성인과의 인터뷰를 이어갔다. (한국에서보다 독일에서는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상당하다)

인터뷰 내용

요하네스 오이리히(Johannes Eurich)

경력

- 1986 ~ 1991 년 Ev. 스위스와 미국의 신학, 베델 대학교의 신학 석사
- 1996 ~ 2000 하이델베르크 대학 실용 신학 대학원 박사
- 2010 ~ 2013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인문 사회 과학 연구과
- 2013 ~ 2018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부 학장



연구분야

- A. Langer와 함께 유럽 연합 (EU)의 제 7차 FRP에서 “사회 서비스 혁신을 위한 Innoserv Platform”이라는 유럽 프로젝트 책임자

Q 현재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젊은이와 어르신들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노인들은 디지털 기계에 대해 잘 몰라 젊은이들이 디지털 테크닉을 가르쳐주며 함께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 배우며 주제의 폭을 좁혀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 행정적인 일(편지, 지원서) 작성하는 일들을 도와 주며 서로 상호간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노인, 젊은이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수집하고 연결 하는가 입니다.

Q 독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 되나요?

A 독일은 한국보다 사회복지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도, 유학을 가서도 사회통합의 일원의 활동을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많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곳 하이델베르크만해도 많은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학교를 졸업한’ 사람 뿐 아니라 ‘학교과정을 다 끝내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는 ‘시행하고 있다’는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시행이 되고 있으면 참여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Q 현재 남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이 원활히 될까요?

A 현재 북한이 많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켜봐야 할 일 같습니다. 남북한 중간에 미국도 있고 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서로 잘하는 것과 장점을 잘 이끌어 내야 남북한은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남한은 기술이 있고, 북한에는 인력이 있지 않나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해야하고, 그 전에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무엇이랴도 자꾸 협력을 하고 연계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미국과 트럼프가 있지요. 현재는 남북한에 우호적인 것 같지만 역시 미국도 계속 지켜 볼 일입니다. ‘통일’과 ‘미국’이라는 과제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가 독일보다 더 원활히 통합을 이루어 내기를 바랍니다.

3. 향후 접목계획

구분	주요내용
중·장기 발전	• 중·장기적으로 단회기성 진로체험 활동에서 벗어나 중회기성(2일~3일)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개발 • 청소년간의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계층간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프로그램	•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다름의 생각을 공존하고 존중하는 프로그램 개발 • 협의적 정책 활동(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등)으로 일부의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확대방법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시 프로그램 청소년 행복의회에서는 활동을 원하는 의원 선출에서 벗어나 각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선출한 학생회를 청소년 행복의회에서 각 부서 정당(政黨)화 하고 의장을 선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 2019년 제3회 국제청소년컨퍼런스 in 성남 운영시 요하네스 오이리히 교수님 초빙하여 다국가에 대한 사회통합 강연

4. 참여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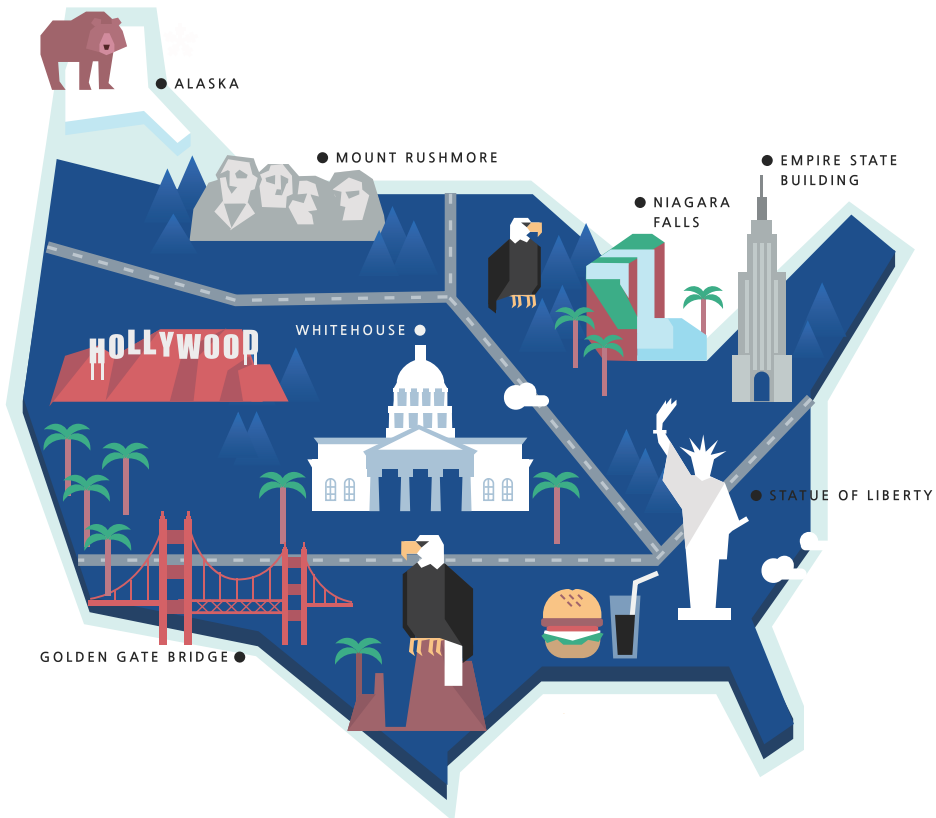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국가 사회통합	• 통일이 된 후 서독과 동독 사람들 간의 문화 차이나 이념의 차이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음. • 통일이 된 후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생각에 맞출 필요가 없다 생각했고 그들의 문화, 이념 등을 받아들여 현재의 독일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음.
프로그램	• 독일 시민들은 정책(사회통합)과 정치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함. •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생각날 때 독일 시민들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함.
진로활동	• 독일은 학생 진로체험 시 3일간 회사에 가서 일을 배움. • 참여했던 청소년이 자신과 맞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3일 더 참여하여 총 6일 동안 진로체험을 진행함. 단, 독일은 중학교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인문계로 진학을 할지 기술직으로 진학을 할지 알기 때문에 한국 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음.





배틀넷(미국)

미국 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 MOU체결 및 벤치마킹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주제

- 수련관의 향후 국제사업 대상 다양화, 선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의 국제역량 향상과 수련관의 파트너 국가 확보를 위하여 직원들의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市) 유스센터와 MOU체결을 통해 미국 청소년 기관 및 문화 벤치마킹 등을 하고자함.

■ 배경 및 목적

- 미국 내 우수한 청소년 기관, 정책, 문화체험 등의 콘텐츠를 찾고, 수련관 국제사업의 글로벌화 방향설정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고자함.
- 수련관의 운영, 활동, 문화 사업 등 국제 네트워킹 확대를 통한 국제사업 저변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함.
단회기성의 연수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수련관에 적용 가능한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찾아서, 귀국 후 우수한 콘텐츠의 발표회를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함.
- 곰飛up프로젝트(판교-4800(2018.09.13.))의 도시탐방 프로그램 진행 시 테너플라이시(市)의 시장 Porter Rustin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류활동(한글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테너플라이 시의 유스센터와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MOU체결을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보다 구체적인 협의 등을 위한 방문 등이 필요하며, 향후 1992년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한 미서부의 콜로라도주의 오로라시와 미동부 뉴저지주의 테너플라이시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 및 교류의 매개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음.
- 수련관뿐만 아닌, 재단 연계 사업(예:국제컨퍼런스)사업으로 확장 도모함.

■ 장소 및 기간

구분	장소	기간
내용	미국(동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	12월 01일 ~ 12월 07일(5박 7일)

■ 팀원 및 역할

● 팀 명: *배틀넷(N.E.T)

※ 가서 배우고, 우리의 틀에 맞춘다. 수련관의 특화 및 활동 사업 내 콘텐츠인 생태 및 환경(N: nature)콘텐츠, 교육 및 활동(E:education)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사업의 콘텐츠 교환(T:trade)을 통해 상호 기관 내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는 의미임.

● 구성원

소속	직급	성별	성명	역할
문화사업팀	팀원	남	이성희	- 기관 MOU 및 프로그램 운영 총괄
청소년활동팀	팀원	남	김태중	- 청소년 활동 및 홍보 콘텐츠 개발
운영지원팀	팀원	여	유상희	- 조직관리 및 지역연계 콘텐츠 개발

2. 세부진행내용

■ 전체 일정표

구분	12/1(토)	12/2(일)	12/3(월)
00:0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집결 김포공항출발		
09:00	김포공항 → 북경공항	09:00 집결	09:00 집결/미팅/출발
10:00			Bergen County 도시탐방 및 지역연계자원 파악 (Tenafly, Closter Palisades Park, Englewood)
11:00			
12:00			
13:00			
14:00	북경공항 → 뉴욕공항 (13h 30min 소요) (현지시간 12/1 오후 3시 도착)	일정점검 및 최종 업무분장, 서류 검토 및 지역현황 자료 리서치	Tenafly Youth Center 방문, MOU Ceremony(체결) 및 프로그램, 콘텐츠 관련 1차 업무협의
15:00			
16:00			
17:00			
18:00			
19:00	숙소 및 세면, 취침	숙소 및 세면, 취침	콘텐츠 타당성 검토 회의 (1) -산출자료: 콘텐츠개발일지, 만다라트계획서
20:00			
21:00			
22:00			숙소 및 세면, 취침
23:00			
24:00			

구분	12/4(화)	12/5(수)	12/6(목)	12/7(금)	
00:00			뉴욕공항 집결	뉴욕공항 → 북경공항 (13h 30min 소요) (현지시간 12/7 오전 5시 도착)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09:00 집결/미팅/출발	09:00 집결/미팅/출발	뉴욕공항 → 북경공항	북경공항 → 인천공항 (2h 소요, 7h 대기)	
10:00	Tenaflly Nature Park 탐방 및 Tenaflly Nature Center 방문 및 벤치마킹	Newjersy KCC (한인동포회관) 방문 및 프로그램, 콘텐츠 관련 업무협의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Tenaflly Board Of Education 방문 및 업무협의	Tenaflly Youth Center 방 문 및 프로그램, 콘텐츠 관련 2차 업무협의			인천공항 (현지시간 12/7 오후 4시 도착) → 수련관
17:00					
18:00				수련관 도착	
19:00	콘덴츠 타당성 검토 회의 (II) -산출자료: 콘텐츠개발일지, 만다라 트계획서	콘덴츠 타당성 검토 회의 (III) -산출자료: 콘텐츠개발일 지, 만다라트계획서			
20:00					
21:00					
22:00	숙소 및 세면, 취침	뉴욕공항 집결			
23:00					
24:00					

3. 세부일정

구분	기관명	방문내용
MOU 체결	Tenaflly Youth Center	- 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센터장 : Mark slawson¹⁾) MOU 체결 ·협약 기간 2년, 사전 서명 통지 없는 이상 1년 자동 연장 ·국제교류·진로활동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함을 주목적으로 함
기관(지역) 탐방 및 업무협의	Bergen County (Closter Palisades Park, Englewood etc)	- 뉴저지주 버건카운티 내 도시 탐방 ·테너플라이시 외 클로스털, 잉글우드 등 도시 탐방 ·현지 가이드 동행, 청소년 관련 지역 내 각종 정보 (지역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구성의 특징, 청소년 활동 거리 등) 공유
	Tenaflly Youth Center	- 1차 업무 협의 ·MOU Ceremony 및 기관 라운딩 진행 ·센터 내 하계캠프(6주)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분석 ·한국 꿈飛up 프로젝트 상호 교류 가능 콘텐츠 논의, 접목가능성 타진 등 - 2차 업무 협의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소개 및 관련 업무협의 진행 ·현지 청소년의 국제활동에 대한 주요 욕구파악 및 이에 타당한 매칭 가능 프로그램 또는 개발 가능 콘텐츠 논의 등 ·향후 Pator Rustin 시장 및 시 담당관 Lissatt Aporkala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교류에 대한 방안 논의 가능
	Tenaflly Nature Park & Tenaflly Nature Center	- 테너플라이 네이처 파크 탐방 ·Christiana Holstrom(Environmental Educator) ·공원 둘러보기, 자연 그대로의 경관 ·공원 내 목재 형태의 기부일자 다수 있는 것이 특징 - 테너플라이 네이처 센터 방문 및 벤치마킹 ·기관 라운딩, 분기별 생태, 환경 프로그램 벤치마킹 ·교급별 프로그램 전문화, 방과 후 캠프 형식으로 진행
	Tenaflly Board Of Education	- 테너플라이시 교육청 방문 및 업무협의 ·학교방문 절차 관련 정보습득 및 연락망 확보 등
	Newjersy KCC (한인동포회관)	- 한인동포회관 방문 및 업무협의 ·Song H. Kim(Director of Operations) ·Yeinsu Kil(Manager of Operations) ·기관 라운딩,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벤치마킹 ·「콰이어트」의 저자 수전케인과 만남 및 멘토 강의 협의 ·한-미 청소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업무협의 등

4. 향후 접목계획

■ 프로젝트 주제별 콘텐츠 내용

구분	주요내용			
	아이디어/아이템(Idea/Item)	히스토리(HiStory)	⇔	마이스토리(MyStory)
N (nature)	· 미국 생태 공원 지도자 연수 · 미국 생태 공원 청소년 캠프 · 환경 보호 및 개선 프로그램 개발 ·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적용	· 조지호수“제퍼슨 프로젝트” · 염화칼슘의 환경오염 · 네이처 센터 생물 탐사 · 지도자&청소년 여름 캠프	⇔	· 금토산 생태&환경교육 · 미세먼지의 환경오염 · 성남금토산생물탐사(715종) · 지도자 연수&생태캠프연계
E (education)	· 미국 공립학교 운영체계 비교 · 미국 스팀메이커 교육체계 · 미국 한인청소년 멘토강의 · 미국&한국 교류 상호 메리트	· STEM 융합교육 · 작가 수전케인 진로 강의 · YPN 축제 활동(4, 6월) · 한류(예:BTS)의 높은관심도	⇔	· STEAM&Maker교육 · IT&문화예술 멘토강의 · 꿈飛up프로젝트(7,8월) · 우리나라 문화예술캠페인
T (trade)	· 미국 홈스테이 체험 · 유스센터 캠프 연계 활동 · 미국 아이비리그 탐방 · 미국&한국 교류 상호 메리트	· 자원봉사&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조직 체계 ·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 현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체험 캠프&국제컨퍼런스	⇔	· 민·관협 협동 모델 · 기업CSR 지역연계 · 진로&직업 동기부여 프로그램 · 학부모의 높은 관심도

■ 프로젝트 성과 및 내용

- 우리 수련관과 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와의 사업콘텐츠 상호 교류 MOU를 체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테너플라이시(市)와 교육청, 한인회(KCC)등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
- 한국한인회(KCC)와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STEM 융합교육의 참관을 통한 우리나라의 STEAM&Maker교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에 지원(한복, 한식만들기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두 합의함

■ 기대효과

- 국제 우수 콘텐츠의 현지 타당성 조사 및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 우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의 발판 마련을 통한 상호 사업 간 상승효과 증진

5. 참여소감 및 평가

담당자	직급	담당업무	의견 및 평가
유상희	5급	조직관리 및 지역연계 콘텐츠 개발	- 향후 수련관 국외 프로그램 및 운영 관련 다양한 연계 가능성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짐 - 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가 우리 재단과는 다르게 조직 구성 규모가 작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근무하는 형태이나, 청소년을 위한 열의와 노력이 뛰어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면(자문위원회 운영 등)에서의 교류 및 벤치마킹이 가능하였으며, 협의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다양한 면에서의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됨
이성희	6급	기관 MOU 및 프로그램 운영 총괄	미국 내 교육 행정체계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테너플라이시(市)의 유스센터, 생태공원, KCC 한인회 등에 협의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그친 것이 다소 아쉬웠으나, 공궤up프로젝트 담당자로는 2019년 본 사업 전에 업무수행을 원만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 하나를 놓고 오게된 소중한 기회였음. 차후에는 오히려 사업파트(공궤up프로젝트 청소년 관리 및 운영 등)와 대외협력팀(테너플라이시(市) 관계자 면담, 시 공립학교장 면담, KCC한인회 회장면담, 한성일보-뉴저지 한인신문-인터뷰 등)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파트(관장급 or 사무국 팀장, 부장급 이상, 미국문화 전문인력 등)로 2팀 구성이 된다면, 짧은 기간 내 더 많은 활동 사업분야와 대외협력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김태중	6급	청소년 활동 및 홍보 콘텐츠 개발	- 청소년 국제 교류활동 분야에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의 입지가 한단계 성장, 향후 청소년 국제 교류활동 선도 기관으로의 발전을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판단됨. - 국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 서로 다른 부분이 많지만 청소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과 새로운 콘텐츠를 논의해볼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로웠고 발전적인 교류였다고 확신함. 또한 향후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거리들이 발굴되었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 방문에 필요한 시간 및 절차 숙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시켜주는 과정이 다소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는 방한 공식초청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함.

■ 자체평가사항 및 제안사항

테너플라이시(市) 및 뉴저지주 한인회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연계활동에 대해서, 첫 방문에 대해서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교류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들은 긍정적이며,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협력하고자함에 따라 수련관뿐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여김.

6. 붙임문서

- MOU체결문서 각 1부
- 콘텐츠 개발일지 각 1부
- 만다라트 계획서 각 1부



협약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과 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진로활동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협약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 간 교류·협력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업무 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행복한 삶 제공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교류·협력 내용) 양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국제교류 및 진로 활동 관련 청소년 활동 콘텐츠 개발 공동 수행
2. 국제교류 및 진로 활동 관련 청소년 동아리 및 인력 교류
3. 국제교류 및 진로 활동 관련 청소년 행사에 관한 상호협력
4. 기타 협력 관련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제 3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사전 서명 통지가 없는 이상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협약을 개정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협약체결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12. 3.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테너플라이시 유스센터

관장 김진명

센터장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is MOU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among
The Bundang Pangyo Youth Center and The Tenaflly City Youth Center, Based on mutual cooperation, the following business conventions are concluded to cultivate creative talents of young people by linking projects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and career activities.

Witnesseth:

Now, therefore, the parties hereto have come to the following understanding:

1.(Purpos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provide a happy life for the youth and buil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by utilizing the business resources and the accumulated know-how that are accumulated throug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Bundang Pangyo Youth Center and The Tenaflly City Youth Center.

2. (International exchange, cooperation content) The two centers cooperate in the following areas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 1) Joint development of youth activities contents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and career activities.
- 2) Youth clubs and personnel exchanges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and career activities.
- 3) Mutual cooperation on youth events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and career activities.
- 4) Find and promote joint projects to promote other cooperation.

3.(Agreement period)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extend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by one (1) year, without notice by either party. However, if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can not be achieved, the Convention may be revised or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mutual consulta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wo copi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igned and signed by each Contracting Authority.

2018. 12. 3.

The Bundang Pangyo Youth Center

Tenaflly City Youth Center

Director

Kim, Jin Myung

Director

Mark A. Lawson

■ 콘텐츠 개발일지

담당자	이성희, 유상희, 김태중	활동일자	2018. 12. 03.
콘텐츠 제목	테너플라이 및 성남 간 홈스테이 교류프로그램 「꿈飛up 홈스테이」		
SWAT분석			
<S> -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미국현지청소년들간의 자연스러운 문화교류의 기회 확대 - 타 미국동부캠프와의 차별화로 성공한다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함 - 진로&직업에 대해서 단회기성 프로그램이 아닌 SNS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교류 기회 확장		<W> - 미국 홈스테이 문화 이해부족 - 한국 홈스테이에 대한 메리트 부족 - 국제컨퍼런스 연계 가능성은 미국 만 18세 이상 가능할 듯함. - 우리나라 부모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음	
<A> - 꿈飛UP프로젝트 참여자와 국제컨퍼런스 참여자의 이원화 - 단체 SNS(인스타그램 등), 유튜브 운영을 해서, 온라인 이벤트 및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국제 환경 문제 대응) 등을 기획하여 유대감 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		<T> - 홈스테이 선정 가정에 대한 온라인 공개 및 실시간 SNS활용을 통해 참여자 부모에 대한 자녀 안심 확인 서비스지원 - 홈스테이 희망자 선발 등을 위해 참여자 확정을 1~2월 내 조기 마감하여 효율적 운영을 함.	
<팀 평가 및 제언> 꿈飛UP 홈스테이는 꿈飛UP프로젝트 운영을 기존 호텔 등 숙박형이 아닌, 미국 가정 홈스테이 등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차별화된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모색하기 위함. -미국 홈스테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홈스테이를 통한 숙식비와 호텔 숙식비에 대한 비교와 무급 홈스테이 희망자 등 보다 체계적인 홈스테이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개발일지

담당자	이성희, 유상희, 김태중	활동일자	2018. 12. 04.
콘텐츠 제목	테너플라이 환경 및 생태 전문가 양성 과정 교류 프로그램 「자연's」		
SWAT분석			
<S> - 미국 내 생태&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연계 가능성 (연구 및 지원) - 미국 내 테너플라이시 생태&환경 캠프 등 매개 역할 - 청소년 생태캠프 등 수련관과 특화사업 연계를 높일 수 있음		<W> - 고비용 - 생태 및 환경교육에 대한 권위가 있나?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태 및 환경의 인식은?	
<A> - 미세먼지 등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캠페인 - 브라질의 아마존 개발, 지구 온난화에 대한 포럼 등을 통한 수련관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성이 높음.		<T> - 현지체제비 등이 네이처 센터 내 캠핑숙박비용으로 감가될 수 있는지,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 양질화 모색 - 1기, 2기 등 기수제 모집을 통한 집단간 유기적 관계 지원 등	
<팀 평가 및 제언> 자연's는“테너플라이 네이처 센터와 연계하여, 수련관의 생태 지도자의 연수프로그램”으로, 5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테너플라이 시의 생태공원뿐 아니라, 뉴저지 전체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김. 그렇지 않으면, 체류비 등 지도자들이 자부담을 지출하고 올만큼의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임. -고비용이 문제임(1인당 적어도 700만원 이상이 8박 10일간 지출될 것으로 여김) -대학원 한 학기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함.			

■ 콘텐츠 개발일지

담당자	이성희, 유상희, 김태중	활동일자	2018. 12. 05.
콘텐츠 제목	한인동포회관 문화&교육 교류 프로그램 「YPN&PYN」		
SWAT분석			
- 미국 내 우리나라 문화의 동질성 -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 - STEM 융합교육 및 STEAM&Maker교육에 대한 상호교류		- 한인단체 청소년에 행사일정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사 일정이 다름 - 미국 한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는 것은?	
- 한인교류센터 프로그램에 목공교육접목 가능성? 타당성 분석 - 진로&직업 멘토에 대한 공유 미국은 의료&법률&작가, 우리나라는 IT기술과 문화예술 부문?		- 일정조정이 안된다면? 온라인 sns 실시간 방송 교류 검토 4월, 6월의 행사에 직접 참여가 힘들다면, 영상 및 Q&A를 대신 해 주는 관계 등을 통해서, 같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색해봄.	
<팀 평가 및 제언> YPN&PYN는 한인청소년회(Young People Network)의 청소년들과 PYN(Pangyo Youth Network)로 한인청소년회와 함께할 수 있는 수련관 동아리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문제임. - 미국 한인청소년들과 함께 한 프로그램 사례가 없음 - 학업 등으로 미국 한인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활동시간이 부족함. - 담당자가 적극적이며,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류 및 일정에 대한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 할 필요가 있음.			

■ 만다라트 계획표(Nature)

아두아노 수질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수질오염 측정기	진로선호도	생태&환경 전문가	직업선호도	가상프로그램 구성으로	생태지도자 회의하기	현실적인 비용문제해결
탄천오염도	4차산업 기업연계	IBM 조지호수	관심이없다면 인식개선	선호도	미국생태 공금함	1기 모집	지도자	경제적인 시간적인
금토산 생태오염	장기프로젝트	기업연계 필수	미국환경보호	환경단체 및 기업캠페인	지역선호도	경력위주로	수업커리큘럼 구성	시민단체 자발적참여
수료확정인원	테너플라이시 공무원	생태담당자	4차산업 기업연계	선호도	지도자	방과후 프로그램	시차해결	5일참여
생태지도자	팀구성	공원담당자	팀구성	자연's	일정	뉴저지주 조지호수	일정	항공스케줄 문제
네이처센터 환경교육가	청소년대표	교류담당자	청소년	예산	권위 (수로증)	사례연구일정	동부지역 학교방문	네이처 센터일정
환경분야 진로선호	공학분야 진로선호	생태분야 진로선호	기업 사회공헌	구매력	소비력	환경교육가	테너플라이시 수로증	시 협의
생기부 반영여부	청소년	30명 이상	환경부문 예산	예산	600만원 내외	환경교육가 연합회회원	권위 (수로증)	뉴저지주 국립공원
중학생 15명	초등학생 15명	생태캠프 참여자	시민단체 후원금	고비용 해결	제일 큰 문제	학회인정 여부	발급비용해결	온라인병행 가능성

■ 만다라트 계획표(Education)

기업 사회공헌	한인회 재능기부	참가비	수학과 과학	미국과 다른점	예술적 관점	기말고사후 방학전	5일	항공스케줄 반영
편입 시스템활용	예산	600만원 내외	창의성?	스팀메이커	창의력?	7월~8월	일정	4월 전 참여자모집
홈스테이 재능기부	민관협 협동기회	고비용	IT는 적용만	판교메이커 대회	Story	기수 체계선발	유튜브 방송일정 방송참여	4월,6월 프로그램 영상참여
청소년 활동보고대회	수전케인작가 강연	KCC 후원의 밤	예산	스팀메이커	일정	출판사 연계부문	멘토	내한일정
4월,6월 가능여부	한인회	7월~8월 프로그램연계	한인회	「YPN&PYN」	수전 케인 과이어트	기업 사회공헌연계	수전케인 과이어트	한인회일정
신규사업의 형태로감	한인인론 활용	MOU체결	문화교류	진로&직업	메리트	예산절감	납편문이 한인회연계	멘티
문화공헌	한류 BTS 커버곡	한복 입어보기	수료여부	동기부여 프로그램	청소년지도	한국문화 예술부문멘토	연계활동 우수상	재능기부자 리스트공유
방문 (국제컨퍼런스)	문화교류	한식 먹어보기	IT분야 멘토선정	진로&직업	멘토&멘티	VMS?	메리트	사회공헌활동 연계
유튜브활용	SNS활용	한글 써보기	문화예술분야	직업인과의 만남(연계)	대학진학	유대감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만다라트 계획표(Trade)

에티켓 교육	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마상체험	표범라인	자유여신상	한인회 담당자	꿈beup담당	대외협력팀
관리자는?	지원봉사 홀스데이	테너풀라이시 시민단체	수영캠프	마크 캠프	프린스턴 방문	테너풀라이시 지도자	팀구성	차량 스쿨버스
미국홀스데이 규정	비용절감효과	프리미엄 효과는?	8월 5일 전	마크 후임	3개월전 확정	6명 이상	지도자 1명 당 10명	생태지도자 가능여부
부모허락	마크 연락	18세 이상	자원봉사 홀스데이	마크 캠프	팀구성	워싱턴DC 일정	자부담	600만원
안전함	국제 키퍼런스	BTS 인기도	국제 키퍼런스	꿈飛up 홀스데이	일정&예산	4월 전 방문참여자 확정	일정&예산	아이비리그 일정 포함
진행가능성	와서 뭐함?	사업연계	공립학교 방문	비용지불 홀스데이	사한지교	마크캠프 중복일정	사업비	나이아가라 일정포함
메이커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방문 사전 3개월 전 명단	1가구 당 4명/8가구	350만원	마크캠프 약 700달러	아리랑기획단	한복 한인회연계	한글 한글디자인
진로&직업	공립학교 방문	아이비리거 멘토링	홀스데이& 숙박 여행가능	비용지불 홀스데이	국제 키퍼런스?	한식 한인회연계	사한지교	한류 BTS커버곡 댄스
학교방문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장 면담	비용타당성	우리나라 홀스데이	2019년 1월 전 결론	연습시간은?	VMS	사전사후활동



젊으니(독일)

독일 청소년의회 우수사례 및 참여활동 벤치마킹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주제

- 궁금한 이야기Y (Youth Participation)



청소년 참여를 주제로 독일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함.

■ 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반영 청소년 참여 확대 및 방식의 다변화 추진
 - 1-1. 청소년 참여 확대
 -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수립 연구 반영
 - 1-1-1.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민 핵심역량 강화
 - 1-1-2. 자발적 청소년 조직 구성·운영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성남시조례-제2812호(2014.11.10.)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 운영
 - 성남시 청소년을 대변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 참여
 - 정책제안 및 실행활동 추진과정에서 성남시 18만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지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
- ⇒ 청소년 의원 선출방법(직접선거 등) 및 추진과정 벤치마킹을 통한 청소년의 민주주의와 시민학습의 과정 적용 및 청소년 대표성 강화
- 국외 청소년 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필요성

각 나라의 청소년의회는 각 국가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실시되었던 청소년 참여는 소극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수준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자문수준의 참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서비스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청소년의 생각, 아이디어,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며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다(이재연, 2005). 청소년들은 자문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과 관련된 법률, 정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이재연, 2005). 그러나 Hart(1997)의 참여사다리에 따르면 자문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참여는 청소년이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또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행사하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¹⁾

국내 청소년 의회는 역사가 짧아 청소년 의회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외 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과 활동을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함으로써 보다 내실화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내 청소년 의회 개원 현황]

구분	개원년도
성북구어린이·청소년의회	2013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2015년
동작구청소녀의회	2015년
강동구청소녀의회	2016년
금천구청소녀의회	2016년
양산시청소년의회	2016년
군산시어린이·청소년의회	2016년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2017년
고양시청소년의회	2017년
당진시어린이·청소년의회	2018년
수원시청소년의회	2018년

⇒ 오랜 역사를 가진 국외 청소년의회 벤치마킹을 통한 청소년 의회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1) 청소년 참여활동 증진 로드맵 수립 연구(2017)

■ 목적

- 청소년 지도자의 글로벌 역량강화
- 해외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습득·적용을 통한 국내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도모
- 청소년 의회 및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 장소 및 기간

구분	장소	기간
내용	독일 하이델베르크 및 프랑크푸르트 일대	2018년 11월 25일 ~ 11월 30일(4박 6일)

■ 팀원 및 역할

● 팀 명: 젊으니(Germany)

● 구성원

소속	직급	성별	성명	역할
사무국	6급	여	김마리	【사전】 - 현지 연계기관 정보 사전 조사 및 섭외 - 예산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 【현지 및 사후】 - 청소년 의회 구성(선거) 방식 및 Know-how, 운영사례 파악 - 보고서 정리 및 자료관리
수정청소년수련관	4급	여	김화자	【사전】 - 현지 연계기관 섭외 및 세부내용 협의 - 국외출장계획서 작성 【현지 및 사후】 - 청소년 및 시민 참여 정책 검토 - 청소년 의회 제도적 기반 파악
중원청소년수련관	6급	여	이선희	【사전】 - 현지 숙소, 교통 등 사전조사 - 현지 통역 섭외 【현지 및 사후】 - 청소년 및 시민 참여 프로젝트 운영방법 및 현황 파악 - 사진촬영 및 기록

● 구성근거

소속	직급	성명	역할
사무국	6급	김마리	- 現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담당 - 現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포럼 담당
수정청소년수련관	4급	김화자	- 現 예산, 규정, 자문위원회 담당 - 前 2014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조례 제정 담당
중원청소년수련관	6급	이선희	- 現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 - 前 2015 성남시동아리활동지원사업 담당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사업 연계

2 세부진행내용

■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18. 10. 15. ~ 10. 19.	- 방문 기관 섭외 및 contact - 독일 유학생 커뮤니티 협조 요청(통역 지원) - 사전 자료 조사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등 6개 기관
2018. 10. 19. ~ 10. 24.	- 계획서 작성 - 2018. 글로벌 역량향상 프로젝트「글로벌 배틀트립」 신청서 제출	
2018. 10. 31.	- 2018. 글로벌 역량향상 프로젝트「글로벌 배틀트립」 심사결과 안내	
2018. 11. 2.	- 국외출장계획서 및 해외여행자수칙 제출	
2018. 11. 3. ~ 11. 20.	- 항공권, 숙박 예약 - 여행자보험 가입 등 준비	
2018. 11. 5 ~ 11. 23.	- 방문기관 및 통역 최종 contact · 방문일정, 내용 등 협의	

■ 방문국가 및 도시 정보

● 국가 정보

1. 기본정보

국가명	독일연방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치	유럽 중부	
면적	357,112km ²	
언어	독일어	
인구	82,335천명 (인구밀도 230명/km ²)	
수도	베를린(Berlin)	
행정구역	1특별행정구, 자유시, 13주 (2,060개 도시)	
정치체제	공화제(국민주권), 민주주의(대의제), 다당제	
민주주의 지수	169개국 중 13위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1인당 GDP	\$52,896	
공식화폐	유로(EURO, €)	
국제전화코드	+49	
우리나라와 수교	1995년	
한국과의 시차	-8시간	

2. 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

-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복지적 접근, 교육적 접근의 축으로 구성

- 복지적 접근: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및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을 근거법령으로 함
- 교육적 접근: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 전인적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 독일 청소년활동의 모태는 청소년운동 반더포겔(Wandervogel)

- 청소년이 산과 들, 바다와 같은 자연을 도보 유람하는 활동
- 이후 청소년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변혁에 선구적 역할

- 오늘날 독일의 청소년 사업

- 청소년의 학교 밖 여가시간과 밀접
-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 전제

- 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

- 중앙 연방정부: 연방가정 · 노인 · 여성 · 청소년부(BmFSFJ)
- 주(州) 자치단체: 청소년청(Jugendamt),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ß)

- 독일의 청소년 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센터, 청소년의집, 캠핑장 등 한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유사

독일 청소년의회

- 독일의 청소년의회는 지역 정치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제 기관 지역에 따라 'Jugendgemeinderat', 'Jugendparlament', 'Jugendbeirat', 'Jugendforum'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각 청소년의회는 서로 상이한 구성, 역할, 활동
- 독일 청소년의회는 1985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인가르텐(Weingarten)에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필더슈타트(Filderstadt)에서는 최초로 보통선거로 청소년 의원을 선출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89개, 바이에른 주 41개, 라인란트 팔츠주 42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75개, 니더작센주 16개, 헤센주 24개 청소년의회 존재(LAG JUPP 21, 2010)

● 방문도시 정보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 위치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면적 : 108.83km² - 인구 : 약 144,634명 네카어 강과 라인 강의 합류점에 가까운 해발 고도 116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명은 '복숭아가 많은 산'이라는 뜻이다. 전자·광학·자동차·기계·섬유 등의 공업 지대가 라인 평야부의 신시가지에 입지하며, 구시가지는 괴니히스뉘틀 산기슭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성(城) 아래를 흐르는 하천을 따라 뻗어 있다. 학술 도시로 1386년에 창설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다.
에틀링겐 (Ettlingen) 	- 위치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면적 : 56.74km² - 인구 : 약 39,315명 카를스루에(Karlsruhe)시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검은 숲의 북쪽에 위치한 Karlsruhe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로마시대에는 중요한 교차로로 로마 목욕탕 등 많은 로마시대 유물을 가지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Main) 	- 위치 : 독일 헤센주 - 면적 : 248.31km² - 인구 : 약 746,878명 라인 지구대 북부 라인강(江)의 지류인 마인강(江) 연변에 있는 상공업도시이다. 문호 괴테의 출생지로 널리 알려졌다. 18세기까지는 국왕의 선거 및 대관식이 거행되던 곳이었다. 1815년 빈 조약으로 독일의 4개 자유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1816년에는 독일연방 의회의 개최지가 되었다. 1848~49년에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렸으며, 1871년에는 프랑스-프로이센전쟁의 화평조약이 이곳에서 체결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항공·철도·자동차 교통의 요지가 되었으며, 독일의 경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주식·상품거래소가 있고 매년 국제박람회가 열리는데 특히 2년마다 열리는 자동차박람회가 유명하며, 그 외 도서, 기계공구, 생활용품, 액세서리 등의 국제박람회로 알려졌다.

● 일정표

일자	장소	교통	시간	내용
1일차 11.25.(일)	인천 /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항공	오전	인천국제공항 → 프랑크푸르트공항
		개별 교통	오후	프랑크푸르트공항 → 하이델베르크 이동 (1시간 30분 소요)
				(숙박) 하이델베르크
2일차 11.26.(월)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개별 교통	오전	【기관방문】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Heidelberg Jugendgemeinderat) - 청소년의회 의원 인터뷰 -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방법, 구성 및 운영, 참여절차, 성과 등
			오후	【기관방문】하이델베르크 시청(Heidelberg Rathaus) - 시청 견학 - 청소년의회 지원현황 및 운영방법 등 ● 보고서 정리 및 평가회의
				(숙박) 하이델베르크
3일차 11.27.(화)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에틀링겐 (Ettlingen)	개별 교통	오전	하이델베르크 → 에틀링겐 이동 (2시간 소요)
			오후	【기관방문】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 - 청소년의회 견학 - 청소년의회 의원, 청년코디네이터, 담당자 인터뷰 -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방법, 구성 및 운영, 참여절차, 성과 등 에틀링겐 → 하이델베르크 이동 (2시간 소요) ● 보고서 정리 및 평가회의
				(숙박)하이델베르크
4일차 11.28.(수)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개별 교통	오전	▶ 역사문화탐방 ◀ 하이델베르크 대학(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 1385년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 -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 캠퍼스, 도서관 등 탐방 【기관방문】하이델베르크 시민참여센터 (Koordinierungsstelle Bürgerbeteiligung) - 시민참여센터 견학 - 시민참여 프로젝트 운영방법, 현황 등
			오후	【기관방문】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Heidelberg Jugendgemeinderat) - 청소년의회 의장, 의원 인터뷰 - 청소년의회 실질적 운영사례 및 방향성 논의 하이델베르크 → 프랑크푸르트 이동 (1시간 30분 소요) ● 보고서 정리 및 평가회의
				(숙박) 프랑크푸르트
5일차 11.29.(목)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개별 교통	오전	【기관방문】로머 시청사(Römer) - 로머시청사 견학 - 시청사 역사, 활동 등 조사
		항공	오후	▶ 역사문화탐방 ◀ 파울교회(Paulskirche) - 독일 최초의 자유 선거로 구성된 의회인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회의 장소 프랑크푸르트공항 → 인천국제공항 이동
6일차 11.30.(금)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인천	항공	오전 오후	프랑크푸르트공항 → 인천국제공항 이동

■ 기관 방문 내용

● 방문기관 정보

구분	기관명	주소/연락처	비고
시민 참여 기관	하이델베르크 시민참여센터 (Koordinierungsstelle Bürgerbeteiligung)	🏠 Prinz Carl, Kornmarkt 169117, Heidelberg ✉ buergerbeteiligung@heidelberg.de ☎ 6221 58-21500	담당자 코디네이터 (Frank Zimmermann)
청소년 의회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Heidelberg Jugendgemeinderat)	🏠 ergheimer Straße 6969115, Heidelberg ✉ jugendgemeinderat@heidelberg.de ✉ 01-Sitzungsdienste@Heidelberg.de 🌐 www.facebook.com/ pages/Jugendgemeinderat- Heidelberg/122747234407037 ☎ 6221 58-10360	의장 (Furozan Naderi) 의원 (Nikola Ramo Istrefaj)
청소년 의회	에틀링겐 청소년의회 (Ettlinger Jugendgemeinderat)	🏠 Frau Leicht, Frau Postl, Frau Kammerer Schillerstraße 7-976275, Ettlingen ✉ bjfs@ettlingen.de ☎ 7243 101-509, 101-511, 101-8921	담당자 (Christina Leicht) 팀장 (Heike Orlovius) 의원 (Maximilian Hermes) 청년 코디네이터 (Laura Reichel, Peter Schmid)
공공 기관	뢰머 시청사(Römer)	🏠 Römerberg 60313, Frankfurt am Main ✉ ausbildungsstellen@stadt-frankfurt.de ☎ 69212 31888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하이델베르크 시청



하이델베르크 시민참여센터



에틀링겐 청소년의회



뢰머 시청사



파울교회/하이델베르크대학

● 기관방문 세부내용

구분	기관명	방문내용	
시민 참여 기관	하이델베르크시 시민참여센터	■ 방법 - 시설 견학, 자료 요청 등 ■ 조사내용 - 시민참여 프로젝트 · 대상 : 하이델베르크 시민 누구나 · 참여영역 : 건설, 주택, 교육, 문화, 어린이, 청소년, 운송, 환경, 노동, 도시개발 등 시 주요 프로젝트 · 운영과정 : 시 주요 프로젝트 논의 과정에 시민 참여 ① 프로젝트 공개 : 시 홈페이지, 인터넷, 지역신문 등 ② 참여 시민 모집·선정(신청·선별) ③ 시민 협동 계획 및 논의, 결정 ④ 참여 내용 이행 : 시의회 의결 등 ⑤ 프로젝트별 과정 공개 · 운영방법 : 워킹그룹, 워크숍, 포럼 등 · 운영기간 : 프로젝트별 규모와 내용에 따라 일회성 ~ 몇 개월간 - 주요사례 · 하이델베르크 국제건축박람회 개최 2011년 시민참여 프로젝트 결과 2011년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4년에 한번 씩 개최 결정 (2022년까지 개최 계획) - 시사점 · 시 주요 프로젝트 논의 과정부터 시민 참여 보장 · 참여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진행단계(정치적/행정적 단계), 투입 예산 등 - 수집자료 · 시민참여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1부. · 2018 시민참여 프로젝트 목록 1부 .	담당자- 코디네이터 (Frank Zimmermann)



프로젝트 과정 공개 예시

구분	기관명	방문내용	
시청 / 청소년의회	하이델베르크 시청 /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 방법 - 담당자 및 청소년 의원 면담 - 시설 견학 등 ■ 조사내용 - 청소년의회 구성 : 대상, 구성(선거) 방식 - 청소년의회 활동 : 참여절차, 주요활동 및 성과 - 제도적 기반 : 권한과 책임, 규정 등 - 참여 청소년 입장에서 참여 동기, 삶의 영향력 등 - 담당자의 역할, 지역사회 인식 등	세부내용 [붙임 1] 독일의 청소년의회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의회 발전방향
청소년의회	에틀링겐 청소년의회	■ 향후논의사항 - 2019 성남시 청소년 국제컨퍼런스 참여 방안 - 2019 컨퍼런스 관련 정보 제공 : 담당자, 의장 등 - 공식 절차에 따라 초청 시, 컨퍼런스 참여 예산 확보 등 긍정적 검토 - 지속적 교류 방안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와의 온·오프라인 교류 방안 논의 - 성남시청소년재단-하이델베르크시/에틀링겐 시 청소년 교류활동 방안 논의	
공공기관	뢰머 시청사	■ 방법 - 시설 견학, 현장 자료 조사, 자료 요청 등 ■ 조사내용 - 역사 · 중세 독일 건물로 기원전 50년경 로마인들이 정착하면서 붙여진 이름 · 로마 귀족의 저택을 1405년 시에서 매입하여 시청사로 사용하기 시작 · 1562년 신성로마제국 막시밀리안 2세의 대관식과 축하연회가 열림 - 조직 구성 · 11개 부서로 구성 : 시장, 재무, 인적자원, 건설 및 부동산, 문화 및 과학, 청소년 및 노인 등 - 주요역할 · 시정운영 및 시민 서비스 제공 · 교육·연수·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회 등 - 시사점 · 역사적 건물을 시청사로 활용 ·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행사 장소로 활용	 뢰머 시청사에서 진행 중인 행사

※ 세부내용 별도 붙임: [붙임 1] 독일의 청소년의회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의회 발전방향

● 면담내용

구분	기관명	면담자	주요면담내용
청소년 의회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의장 (Furozan Naderi) 의원 (Nikola Ramo Istrefaj)	- 청소년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유 - 청소년 의회 추진활동 - 청소년 의회 활동을 통한 변화 - 선거절차 및 방법, 내용 - 시 또는 시의회 대상 제안 정책 - 청소년 의원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 청소년 의회 활동의 아쉬운 점
청소년 의회	에틀링겐 청소년의회	담당자 (Christina Leicht) 의원 (Maximilian Hermes) 청년 코디네이터 (Laura Reichel, Peter Schmid)	- 청소년 의회 활동내용 및 추진 성과 - 청소년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유 - 청소년 의회 조직 구성 - 선거절차 및 방법, 내용 - 청소년 의회 모집 홍보 내용 - 청년 코디네이터의 역할 - 청소년 의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 청소년 의회 활동의 장점

※ 세부내용 별도 붙임 : [붙임 2] 인터뷰 질문 및 답변자료

3. 향후 접목계획

■ 성남시 청소년 대상 직접선거 시행을 통한 청소년 의회의 대표성 강화

- 2019. 1. 22. ~ 2. 10.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선거 시행
- 대상: 성남시 내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만 9세~24세) 참여
- 방법: 행복의회 전자투표시스템 접속→본인인증→투표(1인 6투표, 지역구별 2표)
- 청소년 선거를 통한 성남시 청소년 대표 선출 및 청소년 의회의 권한 강화
- 청소년 의회 직접 선거 활성화 및 제도 보안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 지자체와 교육청 연계를 통한 모든 학교, 모든 청소년 대상 보편적 선거 시행
- 청소년 의회 의원 지원가능 나이의 청소년에게 성남시장 명의의 행복의회 모집 안내 및 신청서 우편물 발송을 통한 의회 홍보 및 권한 강화 도모

■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직접적 프로젝트 수행으로, 사회참여의 개념 확장

-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을 수렴한 직접사업 시행을 통한 청소년 의회의 권한 강화
- 지역 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욕구 해소 및 반영
- 정책 및 지원 실현으로 청소년 의회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
- 청소년의원의 성취도 및 자긍심 향상
- 직접적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내외 청소년 의회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십 강화

- 독일 하이델베르크 및 에틀링겐 청소년의회「국제청소년컨퍼런스 in 성남」초청
⇒ 2019년 1월~2월 중 자세한 일정 및 세부진행사항 협의 예정
- 독일의 청소년의회 관련 내부 규정 및 활동 내용 공유를 통한 제도적 벤치마킹
- 컨퍼런스 초청을 통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및 에틀링겐 청소년의회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교류활동을 통한 전국 최초 청소년의회 해외 교류활동 운영

■ 시설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활동 로드맵 구축

- 수정구(3개), 중원구(1개), 분당구(3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영역 확대
⇒ 수련관 주요 결정과정(시설 개선 등)에 참여 의무화
- ⇒ 청소년시설에서의 주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속에서 참여활동 활성화
- ⇒ 기존 참여활동으로 제안중심의 활동에서 나아가 실행 및 운영까지 확대

4. 참여소감 및 평가

■ 참여소감 및 평가

- 실효성과 영향력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 학습 기회
- 시민으로서 청소년 민주주의를 체험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대한 고민
- 청소년 의회 청소년과 면담을 통한 적시성과 현실성 있는 정보 습득
- 해외 현지 기관 방문의 행정 이해 및 지원 필요

■ 제안사항

- 재단 차원의 지속적인 해외 교류활동 방안 마련
-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 준비성 확보 및 예산 지원 확충

5. 붙임자료

- (붙임 1)독일의 청소년의회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의회 발전방향
- (붙임 2)인터뷰 질문 및 답변자료

(붙임 1)

독일의 청소년의회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의회 발전방향

I. 서론

2018년 발표한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를 통해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시민 핵심역량강화와 자발적 청소년 조직 구성·운영 지원체계 구축 등을 핵심지표로 삼아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차세대위원회의 성남시 청소년 참여보장방안 제안이 수렴되어 2014년 성남시조례-제2912호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성남시의 위탁을 받아 성남시 청소년을 대변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소극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수준의 참여가 대부분이며, 자문수준의 참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서비스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청소년의 생각, 아이디어,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며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다(이재연, 2005). 또한 국내 청소년의회는 역사가 짧아 청소년의회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외 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과 활동을 알아보고 청소년 참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II. 독일의 청소년의회 운영현황

독일의 청소년의회는 1985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인가르텐(Weingarten)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 정치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에 따라 ‘Jugendgemeinderat’, ‘Jugendparlament’, ‘Jugendbeirat’, ‘Jugendforum’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각 청소년의회는 서로 상이한 구성, 역할, 활동을 수행한다.

1987년 필더슈타트(Filderstadt)에서는 최초로 보통선거로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 여러 주에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설치, 확대되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89개, 바이에른 주 41개, 라인란트 팔츠주 42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75개, 니더작센주 16개, 헤센주 24개 청소년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LAG JUPP 21, 2010) 독일의 청소년의회 제도와 및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일 청소년의회 제도와 및 구성

1) 청소년의회 법적 근거

주 헌법에 “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청소년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Die Gemeinde soll bei Planungen und Vorhaben, die die Interessen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betreffen, diese in angemessener Weise beteiligen.)”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에 ‘참여의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한 경우 ‘공동결정권’을 행사하며, ‘참여의 기회’를 갖는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협의권’을 행사한다. 독일 청소년의회는 주 헌법을 기반으로 구성, 목적, 임기, 선거방식 등은 지역의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 청소년의회 예산

청소년의회의 예산은 지역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청소년 의회에서 프로젝트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소년의회 구성 및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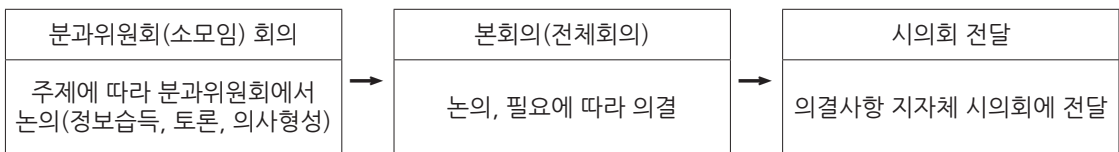
지역마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연령, 재학 및 거주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의원 정수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10~40명, 대도시는 6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방식은 ① 지역의 선거권자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 ② 학교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외 선거관련 세부방식은 지역 시의회선거 방식과 동일하다. 이런 선거를 통한 의원 선출 방법으로 청소년의회는 토론 중심의 청소년 포럼이나 문제해결지향형 프로젝트 등의 참여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전 연령대가 고르게 참여한다.(Hafeneger & Niebling, 2008)

4) 청소년의회 주요 역할 및 활동

독일의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결정한다. 청소년의 생활공간 및 놀이공간과 관련된 일, 청소년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시설의 수리, 공공장소의 안전, 등하굣길, 자전거길, 공공교통, 에이즈나 마약에 대한 캠페인 조직 등 청소년의 주요 이슈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슈에 따라 교육전문가나 해당문제 담당자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주요 활동은 회의와 직접 사업 추진으로 나눌 수 있다.

- 회의



- 청소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파티, 캠페인 등

5) 청소년의회 권한 및 영향력

독일 청소년의회의 권한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의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발안권(發案權) : 청소년의회의 75% 정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청소년의회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 ② 발언권(發言權) : 청소년 의원이 시의회에 논의 과정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로 청소년의회의 44% 정도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 ③ 공동결정권 : 청소년시의회원이 일반 시의원과 같이 의사결정시 투표권을 가지는 경우
(예: 헤센주 포겔스베르크군(Vogelsbergkreis)의 청소년 의원은 군의회(Kreistag) 청소년지원상임위에 참석해 다른 군의원들과 함께 의결권을 행사 : Kinder- und Jugendparlament des Vogelsbergkreises, 2009)

※ 공동결정권을 가진 청소년의회는 예외적인 경우로 극소수에 해당한다.

독일 청소년의회는 일반의회에 비해 제한적 권한 가지며, 시의회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고 공동결정권 역시 극소수 지역에만 있어 권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하이델베르크-에틀링겐 청소년의회 운영현황

독일의 대표적인 청소년의회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하이델베르크-에틀링겐 청소년의회 의장 및 의원,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서면 자료를 통해 파악한 운영현황 살펴보고,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Heidelberg Jugendgemeinderat)는 14세~19세의 청소년 35명이 2년의 임기 동안 디지털, 스포츠, 문화, 교육 등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의 주제와 관련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관내의 모든 학교에서 1인 1투표를 행사하는 직접선거를 시행하여 청소년의회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현재 한국의 청소년의회 및 참여기구가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주무부서 및 시의회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 형태가 아닌 매년 주어지는 활동비 (약 8,000유로)를 통해 직접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기획, 실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 수준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및 청소년들 사이에 청소년의회의 영향력 및 입지가 크고, 이에 따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긍지와 참여의지 역시 매우 높다. 또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써 자격이 주어지는 14세가 되면 시장이 직접 우편을 발송하여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은 모두가 청소년의회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 의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에틀링겐 청소년의회 (Ettlinger Jugendgemeinderat)는 에틀링겐에 거주하는 13~21세의 청소년 12명이 2년의 임기동안 에틀링겐의 청소년을 대변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청소년의회 및 참여기구와 유사하게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서 형식의 정책제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축구장 건립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반영되어 현재 역 근처에 축구장이 건립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에틀링겐 청소년의회는 6명의 연임의원과 6명의 신규의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6명의 청소년 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은 기존 연임의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함께 청소년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의 청소년의회 및 참여기구의 경우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연임으로 참여하고, 잔여 인원을 신규로 선발하거나, 매년 새롭게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임기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매년 신규 의원을 선출하여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되, 연임을 통해 의회의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선거 진행시 추진 방향에 대해 적용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선거의 경우 에틀링겐 관내 모든 학교 대상 오프라인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점은 하이델베르크와 동일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1인 6투표를 진행하며 1명의 후보에게 최대 3표까지 가능하다.

[표1. 독일의 청소년의회 운영현황 비교]

구분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 (Heidelberg Jugendgemeinderat)	에틀링겐 청소년의회 (Ettlinger Jugendgemeinderat)
1	대상	14세~19세 청소년	에틀링겐에 거주하는 13세~21세 청소년
2	인원	35명	12명 (연임의원 6명, 신규의원 6명)
3	임기	2년	2년
4	선출방법	관내 모든 학교 대상 오프라인 직접선거 (1인 1투표)	관내 모든 학교 대상 오프라인 직접선거 (1인 6투표, 1명의 후보에게 최대 3표까지 가능)
5	선거권자 대상	5~10학년 청소년	에틀링겐에 거주하거나 재학하는 13세~21세 청소년
6	구성	디지털, 스포츠, 문화, 교육 등 분과 구성	-
7	활동내용	청소년 의견수렴 및 직접 사업 시행	제안서 형식을 통한 정책 제안
8	회의	매월 1회 전체회의의 매월 1회 분과회의의 진행	매월 1회 전체회의
9	활동예산	8,000유로	3,000유로
10	회의참석비	20~25유로	10유로
11	모집/홍보방법	시장 명의의 신청서 및 안내장 우편으로 배포	학교게시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전개
12	주요성과사례	환경보존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플라스틱, 휴지,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감소	지역사회 축구장 건립 및 축구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13	권한	발안권, 발언권	발안권, 발언권

III. 청소년의회 발전방향 및 제언

독일의 청소년의회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의회 발전방향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참여의 개념 재정립 및 역할 확장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사회참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의견을 내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소극적 참여이며,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형태를 적극적 참여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의견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와 관련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임을 인식하며 참여의 개념을 재정립 하여야 한다. 더불어 참여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자체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청소년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직접선거 시행을 통한 청소년의 대표성 보장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의회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청소년 의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의회의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점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독일의 선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청소년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청소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보다 확장적으로 지역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청소년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모든 학교,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의 대표를 직접적으로 선출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3. 직접적 청소년 참여활동 수행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의 청소년의회 및 참여기구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수렴, 자료 조사, 설문조사 등 의제연구를 실시하여 해당 시·도·자치단체 및 시의회에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의회의 권한은 약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직접적 역할 및 권한과 정책 반영률을 낮다.

하나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는 제안이 아닌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의회의 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함으로써 단순 제안과 요청이 아니라 본연의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청소년의회가 보다 미래에는 시의회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공동결정권을 보장하여 청소년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붙임 2)인터뷰 질문 및 답변자료

1.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

- 인터뷰 대상 : 청소년 의원(Nikola Ramo Istrefaj)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니콜라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나 15살이며, 현재 실업학교 10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독일은 일반 고등학교와 실업학교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저는 실업학교에 재학 중이며, 실업학교는 10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고등학교로 가서 대학 입학 단계까지 계속 공부할 예정입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하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문화와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2.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춘누나가 청소년의회에서 일을 해서 알게 되었고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청소년의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의원으로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나요?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 의원은 14살~19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의원으로 선출되면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수 있으며, 매해 시로부터 8,000유로의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을 대표하여, 회의를 통해 환경, 기후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제안받습니다. 또한 학교나 모임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가지는 문제,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적재적소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8,000유로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것 중에는 환경보존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 플라스틱, 휴지,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리 의회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 의원은 35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학교공부 등으로 인하여 많이 탈퇴 했습니다. 의회는 디지털, 스포츠, 문화, 교육 분과 등으로 나누어져, 각 담당분과마다 모임을 가지고, 모임에서 안전이 정해지면 전체 총회를 진행합니다. 분과 모임은 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전체 총회는 시청에서 진행합니다. 활동에 도움이 필요 할 때는 시의회 의원 6명이 보충이 되어 활동을 지원합니다.

4.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활동 전과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전에는 청소년의회가 무엇인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랐는데 활동을 해보니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과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청소년 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의원 선발과정에서 내 사진이 걸려있는 홍보물이 길가에 걸리다 보니 주위 친구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고, 나 스스로를 들어내게 되었으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5.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의 선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청소년 의원 대상 연령인 14살이 되면 시장으로부터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 의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가 질문과 함께 의원으로 활동 하고 싶도록 긍정적인 설득이 담긴 편지를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편지를 받고 답변을 체크해서 회신을 보내면 이메일로 연락이 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약과 지원 등을 적고, 의원 후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신청 이후 학교에서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방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과 이름이 있고 1사람당 1명을 뽑는 직접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기간 중 아프거나 결석하게 되면 시청에 가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선거기간동안 하이델베르크 시 공무원 2명의 선거 절차 관리 및 진행 아래 하이델베르크의 모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5~10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를 시행하며, 다득표자 35명이 청소년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6.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가 시 또는 시의회로 제안한 정책이 있나요?

특별히 시 또는 시의회로 요청, 제안한 것은 없고, 우리가 청소년의회의 의원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식과 과제를 가지고, 스스로가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한 곳을 직접 찾고, 의견수렴하여 직접 실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 니콜라가 청소년 의원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은 청소년 의회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의회에 대해 소개하고 알리고 싶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학교 등을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뻗고 개선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라던지 청소년들의 원하는 활동과 사업이라든지를 노력하고 싶습니다.

8.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의회(Heidelberg Jugendgemeinderat)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35명의 청소년 의원이 선출되어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청소년기관에서 놀이기구, 프로그램, 취미 등을 공유하며 놀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 등 처음부터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의원 중에 1명이 우리의 활동비 8,000유로가 적다고 이야기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모두 아니라고 거절했으며, 혹시라도 8,000유로 이상으로 프로젝트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시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회의가 있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면 의원들의 회의수당으로 20~25유로를 받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회의수당이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 인터뷰 대상 : 청소년 의원(Nikola Ramo Istrefaj)

2.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

- 인터뷰 대상 : 청소년 의원(Maximilian), 청년코디네이터(Phillip, Laura)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Phillip&Laura: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봉사로 에틀링겐 청소년 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초등/특수학교에서 방과 후 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Maximilian: 저는 14살이고, 올해 에틀링겐 청소년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일반 고등학교 10학년 재학중입니다.

2.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의원으로 활동내용 및 추진 성과를 말해주세요.

청소년 의원으로 다른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는 그런 활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써, 기차역 있는 곳에 축구장 만들기를 제안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 시/시의회에 건의 하였고, 4~5년 동안 지속적인 제안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어 축구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3.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틀링겐 청소년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에틀링겐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제 자신이 변화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배차 간격을 조절한다든지 청소년을 위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4.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 조직구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에틀링겐 청소년 의회 의원은 총 12명으로, 2년 임기로 활동합니다. 그 중 6명은 연임의원이며, 6명은 신규의원입니다. 매년 6명의 의원이 신규로 선출되어 연임의원과 신규의원이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협력합니다. 또 매월 1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1년의 활동 예산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약 3,000유로입니다.

5.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의 선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에틀링겐 청소년의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에틀링겐에 거주하는 13세~21세 청소년이며, 에틀링겐 청소년의회 투표자의 자격은 에틀링겐에 거주하거나 재학하는 13세~21세 청소년입니다. 이때 나이 기준일은 선거 마지막날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면 참여 가능합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시로부터 선거고지와 후보자 관련 책자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우편으로 받게 되면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프라인 선거를 진행합니다. 또한 에틀링겐에 살지않아 우편을 받지 못했으나, 에틀링겐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가지고 와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1명에게는 총 6표가 주어지는데 6표 중 1명의 후보에게는 최대 총 3표까지 줄 수 있습니다.

6.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 청소년 의원을 모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버스정류장, 놀이공원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걸린 홍보물(포스터), 학교 게시판, 인스타그램, 매 주 발간되는 에틀링겐 신문 등을 통해 청소년 의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에서 청년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회의에 항상 함께 참여하고, 저도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의결권은 없어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획과 구성은 청소년 의원이 직접 수행하게 되고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8.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의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선거 포스터에 있는 1번 후보가 저와 같은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의원으로 선출되어 그 친구가 저의 의회 활동을 많이 부러워 합니다.

9. 에틀링겐 청소년의회(Ettlinger Jugendgemeinderat) 활동에 대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2년 임기가 끝나게 되면 청소년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이 증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또는 직장을 갈 때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또한 매월 1회, 1년에 약 10회의 전체회의가 있는데 회의 참석비로 10유로를 받고 있습니다.

2018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 「글로벌 배틀트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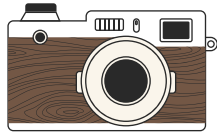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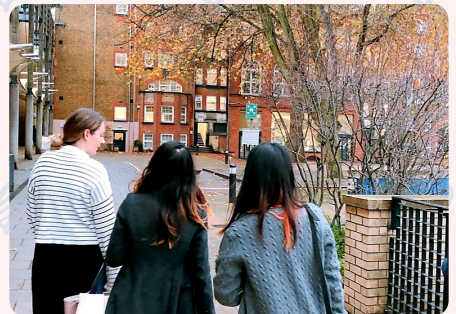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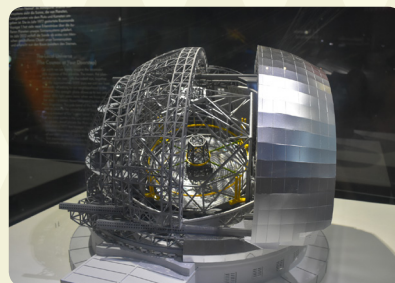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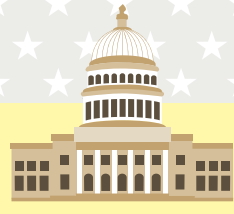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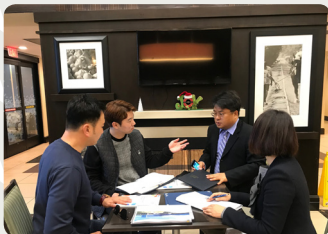
PHOTO ZONE(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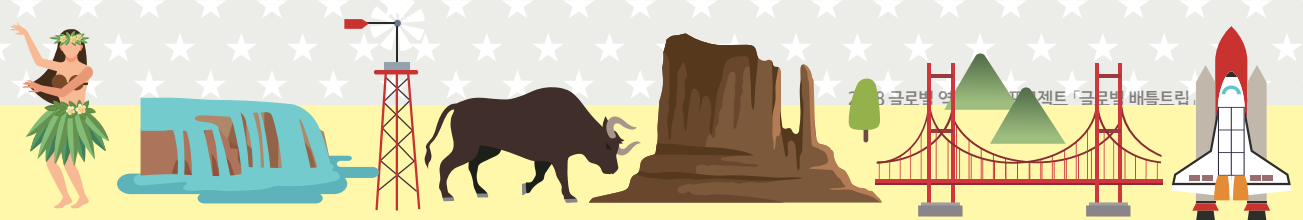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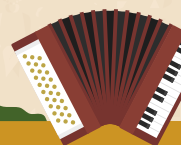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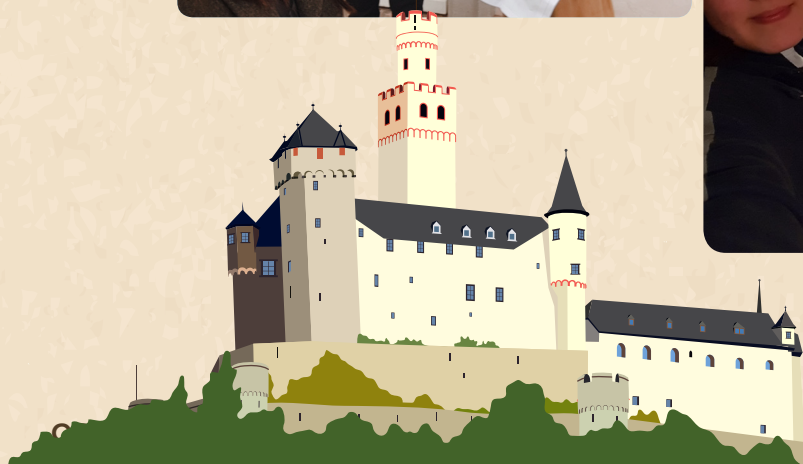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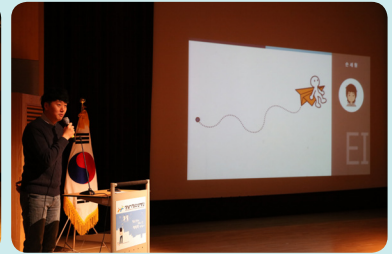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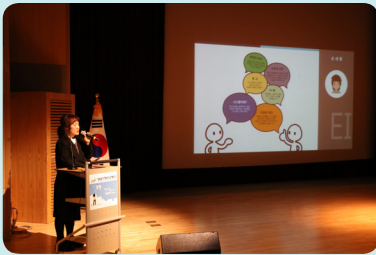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defined by a thin pin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or drawing. The border has small square handles at the corners for resizing.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우3404)
031)729-9000

<http://www.snyouth.or.kr>